



Thank you



다문화 가정 자녀초청 미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이 편지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가주 IM FOUNDATION

‘다문화가정 자녀초청 미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치며

IM Foundation (대표 임낙균 (약대 64))이 작년에 설립된 후 첫번째 사업으로 추진한 한국의 ‘다문화가정 자녀 초청 미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전라남도 교육청과 남가주 동창회와의 협력 하에 16박 17일 동안의 일정을 마쳤다.

전라남도의 각 초등학교 6학년생들 중에 한 명씩 선발된 학생들은 중국계 6명, 일본계 5명, 필리핀계 5명, 베트남계 1명, 우즈베키스탄계 1명, 키르기스스탄계 1명, 한국 1명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20명의 학생들은 7월 25일 LA 공항에 도착한 후 임미현 광양백운초등학교 교감과 IM 재단측 박동우 이사장, 최용성 목사의 인솔로 LA에서 두시간 정도 떨어진 Helendale에 위치한 재단 본부를 숙소로 하고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학생들은 매일 오전 Riverview Middle School 에서 미국 선생님들로부터 영어를 영어교과서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LA 문화원(원장 김낙중 (법대 83)), LA총영사관 (총영사 이기철(법대 77)), 미국 도서관, 유니버설 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쇼퓨, 철도박물관, 게티미술관, 자연사 박물관, 사이언스센터, 은광촌, 다저스 야구경기 참관 등을 방문함으로 값진 미국생활을 체험했다.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수료증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소감들을 감사의 인사글과 함께 남겼다. (일부 위 사진)

한편 남가주동창회측의 오흥조(지대 56) 미주총동창회 7대회장을 비롯한 김병현(공대 68) 현회장, 방석훈(농대 55) 상임이사, 임낙균(약대 64) 회장, 서세진(음대 62) 음대회장, 김지영(사대 69) 상임이사, 강신용(사대 83) 전 총무국장, 백옥자(음대) 미주총동창회 조직국장등 동문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만끽했다. (관련기사 11면)

CHANGE SERVICE REQUESTED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 재단: '다문화가정 자녀초청' 프로그램 2 브렉시트 논설: 엄인호 / 최중무 3 정계훈: 한미동맹의 중요성/조동준: 과거를 보존하자 4 모교소식: 모교발전기금/교수밴드/분당병원 원격의료 5 모교소식: 하계강좌/모교입학포기생/시흥캠퍼스 6 동문동정: 임광수/정인식/서재진/한테라/정해리 7 졸업식 대표연설 최교윤/ '나눔'의 실천 8-9 지부소개: 필리핀/아 10 성연경: 식품영양학의 철학/ 이순태- 자기면역질환 치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IM 재단이 보여준 나눔 12-15 지부: 남가주/코네티컷/뉴욕/워싱턴주/샌디에고 15-17 김학천: 투구단의 형제들/ 특집: '아이들 이야기' 18 한정민: 아들이... 허유선: 아이가 다섯 19-20 이선화: '모네' / My Story: 한만섭/박영철 21 신간: 강창욱/ 이태상/ 이수섭 22 여행: 홍지영-카오르의 비밀/ 송윤정-고통을 겪는 23-24 여행: 산수에 돌아본다/ 영화: 조희유 '인친' 24-25 수필: 최진석/ 이달의 사진/ 독자의 광장 |
|---|---|

[논설]

브렉시트가 북미경제에 미칠 영향



엄인호 (논대 57)

브렉시트(Brexit)란 영국이 유럽연합(EU, 28개국을 묶은 단일시장)에서 탈퇴함을 의미한다. 지난 6월 24일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찬성투표가 과반수를 넘어 영국의 탈퇴는 기정사실이다. 현재 영국경제는 세계 5대 경제대국이며, EU국내총생산(GDP)의 약18%이다. 영국수출품의 50%의 행선지가 EU, 그리고 EU와 FTA를 맺은 비EU국가(페루, 칠레, 한국, 멕시코, 남아공, 캐나다 발효 안 됨)를 합치면, 약63%의 영국수출품이 EU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영국과 EU와의 통상은 90%가 상품교역이고 10%는 서비스이다. EU의 대 영국수출은 약18%에 불과하여, 영국의 대 'EU단일시장' 수출 의존도가 잔류 EU의 영국 의존도보다 높음으로, 브렉시트는 아이로니컬하게도 영국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영국이 EU에서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탈퇴하면, EU단일시장에서 얻은 수 많은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예, 경제영토 확장에서 얻은 수출증가혜택, 경쟁력, 혁신, 전문성제고, 등 경제를 전환시킨 효과). 영국은 앞으로 2년내에 '리스본조약 50조'에 의거 EU탈퇴협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탈퇴협정의 내용에 따라서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칠 효과가 결정된다. '단일시장'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의 앞날이 암담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2년 유예기간 동안에는 잔류EU국-영국간 통상관계는 EU 잔류국과 동일하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부정적인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실물경제에 아주 제한적일 것이지만, 금융시장동요와 EU'단일시장'의 훼손(?)이라는 불확실성에서 야기될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 하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영국에서 이탈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또한 영국이 폭넓고 심도 깊은 FTA를 잔류EU국 그리고 비EU국들(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과 맺는다면, 브렉시트의 부정적 효과가 실물경제에 미칠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국경제를 더 성숙시킬 수도 있다. 영국과 비EU국들 중 EU와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들(페루, 칠레, 한국, 멕시코, 남아공, 캐나다)과도 유예기간내에 FTA를 맺는 것이 영국의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영국-잔류EU간에 FTA를 맺지 못하면, 영국과 잔류EU가 모두 WTO 회원국직으로 WTO 규범에 따라 관세 (MFN관세율 적용) 및 비판세 등 국가간 장벽들이 부활되면서 영국과 잔류EU가 함께 충격을 입게될 것이다. EU회원국들의 결속(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EU탈퇴유지임을 불세)을 위해서도 EU는 영국과의 탈퇴협정을 영국의 EU잔류때보다는 비우호적인 통상협정으로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단일시장'에서는 회원국들이 4개의 자유(재화, 서비스, 자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를 누렸지만, 탈퇴협정에서는 영국-잔류 EU 상호간에 상품, 서비스, 자본의 자유이동을 전제로 하되, 영국은 이주인 유입(사람의 자유이동)은 통제하기를 원할 것이다.**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첫째, 과도기에 닥쳐올 정치적혼란과 '단일시장' 존속의 불확실성 때문에 영국의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빠져

나갈 것임으로, 단기적으로는 파운드화 평가절하, 소비부진, 자산가격의 하락, 투자하락, 등으로 경기침체는 불가피하다. **둘째,** 브렉시트 이후 2년 유예기간 동안은 '단일시장회원국지위'에 변함 없으므로 영국-잔류EU간 그리고 영국-비EU간의 통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지만, 2년 후부터는 영국-잔류EU간 FTA를 맺었다 해도, 영국-잔류 EU간의 교역과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EU'단일시장 회원국지위'와 'EU단일시장 접근 (FTA)'사이에는 엄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는 영국의 수출증가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셋째,** 영국과 비EU국가들 (특히 EU와 FTA를 이미 맺은 국가들)과의 통상은 탈퇴 2년 유예기간내에 FTA를 맺지 않는 한 영국의 수출은 위축될 것이다. **넷째,** EU와 미국, 일본, 인도는 각각 자유무역협정, 중국과는 투자협정을 협상 중이고 캐나다와는 자유무역협정(CETA)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브렉시트 때문에 주요통상 대상국과의 무역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탈퇴이전에 비해 2017년 성장율이 2.2% 에서 1.3%로 떨어질 것이며, 2018년에는 1.3% 감소할 것이라고 IMF는 예측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잔류EU간 FTA를 맺었을 때, 영국의 GDP가 2020년 약3.1% 감소, FTA를 맺지못한 경우 약5.5% 감소가 예상된다고 영국산업연맹은 추산하고 있다.

북미 경제도 여러 측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파운드화, 유로화가 평가절하, 상대적으로 미화와 캐나다화가 강세가 되어, 미국과 캐나다의 대 영국 그리고 대 잔류 EU국들과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2년 이래 파운드화와 미국달러의 환율변동율이 0.35%였는데 브렉시트 국민투표후에 7.6%로 상승, 약21배를 기록한 사실로 볼때, 미국과 캐나다의 대 영국 그리고 대 잔류EU국들에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일자리 감소, 이윤율 저하, 등 북미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자율 상승도 지연시킴으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활발할 것이다.

2015년 캐나다-영국간의 통상실적이 캐나다 총수출액의 3%이고, 총수입액의 1.7%,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캐나다-EU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CETA)이 2017년 1월1일에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캐나다-영국간에 독자적인 FTA를 맺지않는 한, WTO의 MFN 관세율의 적용을 받게됨으로 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브렉시트 효과로 2017년도 캐나다 경제성장률은 2.3%에서 2.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그리고 2018년에는 2.0% 예상치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도 캐나다 중앙은행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영국-EU간 FTA를 맺지못하면, 영국경제가 수출감소와 저성장으로 떨어져, 캐나다의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캐나다-영국간의 교역 규모가 캐나다 GDP에 비해 작기때문에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도 미국의 대 영국수출액이 미국 GDP의 약 0.3%에 불과함으로 미국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브렉시트의 효과가 북미를 거쳐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 캐나다연방경제무역위원회 수석경제학자〉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정치경제학



최종무 (상대 63)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결정 즉 브렉시트(Brexit)와 미국공화당 대통령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국제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다.

전후 70 년간 세계경제의 큰 흐름은 자유화, 국제화를 지향하였고 EU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 브렉시트는 무역과 금융이익을 포기한 우민정치의 결과인가.

트럼프는 기존질서 거부와 위대한 미국재건이라는 구호로 백인노동자층에 인기가 있다. 한국과 나토에서 미군철수를 거론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개발을 용인할 수 있다는 그의 발언은 핵무기 확산금지 국제협약에 어긋난다.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고 (멕시코 경비로), 천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이슬람교도의 미국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중국상품에 40% 수입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실현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엘리트, 반전통, 반국제주의 등의 포퓰리즘은 경제와 테러에 불안한 대중에 호소력이 크다.

문제는 브렉시트와 트럼프가 과연 기존질서의 근간을 뒤엎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국가의 대표격인 영국과 미국에서 왜 두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첫번째, 반국제화 포퓰리즘 정서가 미국과 유럽 공히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일부는 극단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증가에 기인하며 다른 요인은 2008년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불안감이다. 문제 해결의 끝이 안보일 때 불안한 대중은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거나 국제무역에 화살을 돌리며 체제파괴 주장에 매혹된다.

두번째, 정당간 이념다툼보다 엘리트와 민중과의 갈등이 핵심이다. 브렉시트 찬성파는 주권과 정체성의 확립등 메시지가 분명하나 잔류파는 기존질서를 변호해야 하며 메시지가 모호하다. 트럼프의 미국이익우선과 정체성회복 (백인위주 암시) 주장은 분명하나, 엘리트들이 추구해온 국제주의나 자유무역 노선은 몇마디 구호로 설명이 안된다. 또한 엘리트와 블루칼라층은 교육 정도와 언어환경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비대칭을 초래하

며 논쟁을 극단화로 몰고가는 성향이 있다.

셋째는 손익배분의 정치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국FTA와 소고기 파동에서 경험했듯이, 자유무역 토론은 사실과 이성보다 감정으로 흐르고 선동에 취약하다. 무역이익은 크지만 소비자 다수에게 분산되고, 무역손해는 작지만 일부 관련자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반대자의 목소리는 크고 지지자의 목소리는 작다. 이론적으로는 이익의 일부를 떼어 손해를 보전하면 되지만 소득이전정책은 시행이 쉽지 않다. 차라리 자유무역의 이장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감안한 발전된 무역제도 (Enlightened trade)를 차선으로 고려하자는 전 미재무장관 로렌스 섬머스의 주장이 세를 얻고 있다.

넷째, 두사건은 근본적으로 누적된 소득불균형의 결과이다. '21세기의 자본론'을 쓴 프랑수아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1980년이후 자본소득의 대폭 증가 (노동소득은 정체)로 인한 소득불균형의 심화과정을 보여주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세프 스티그리츠 교수는 '불평등의 대가'라는 책에서, 소득불균형은 시장실패가 그 원인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사회불안과 분열을 가져온다고 경고하였다. 자유무역이 직장감소와 임금침체를 가져온 원흉이 아니라 기술발전과 더불어 부유층에 맞게 설계된 경제정책이 노동자층의 몰락을 가져왔다 는 진단이다.

결론적으로 지도층과 기존질서를 거부하는 포퓰리즘은 테러불안과 소득불균형의 심화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당선여부와 브렉시트의 향후진전과 관계없이, 반국제화, 반무역, 반엘리트, 자국우선주의의 정서는 계속 될 것이다.

한국의 대책은, 기업측면에서 환리스크 관리강화와 시설이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통화스와핑과 외국자본 유출에 대비한 토빈세를 검토해 볼 수 있겠다. 동시에 내수시장 활성화와 기업내 실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영미 포퓰리즘의 근본원인이 소득불균형과 서민층의 소외감에 있다 한 (한국도 예외가 아닌), 여러계층을 아우르는 상생과 정의로운 경제실현을 위한 제반정책이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도층은 다양한 국민대응과 소통하며 정책의 명암을 밝히고 중지를 모으는 열린 통합의 리더쉽이 필요한 시점이다.

〈템플대학교 경영대 석좌교수〉



정계훈 (문리대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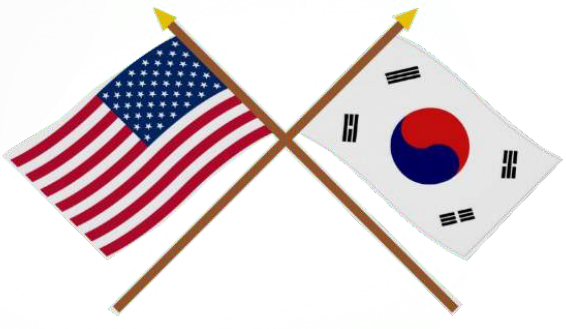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이 63년전 10월 1일에 체결되었다. 한국사람들은 이 조약이 6.25 전쟁후 당연한 유산물이라 생각하지만 이 조약의 역사적인 현실은 다르다. 제 2차대전후 미국은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는 약소국가라는 이유로 자기들의 방어선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한국이 요구하는 방위조약과 한국군의 현대화를 거절했다. 이 틈을 타 북한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남한을 1950년 6월 25일에 침범했다.

남한이 적화통일되면 아시아의 소 국가들이 도미노식으로 적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은 UN 회원국들이 한국전쟁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UN 상임위원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소련의 불참으로 참전결의안이 통과되어 16개국 UN군이 참전했다. 맥아더장군의 기습적인 인천상륙으로 전쟁상태가 반전됐고 아군이 압록강까지 전진함에 위협을 느낀 중국이 대거로 참전했다. 전쟁의 장기화를 우려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주문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했다. 휴전협상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반공포로들을 일반적으로 석방했고 학생들은 매일같이 길거리로 나가 정전반대 시위를 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정전반대로 자기의 선거공약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 대통령이 요구해오던 한미동맹을 약속했다. 이 협정으로 한반도에서 60여년 이상의 평화를 유지해왔고 이것을 배경으로 한국의 급속한 산업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이 진보진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진보진영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한미동맹의 중요성”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6.15 공동성명 참조). 그들의 기본적인 대북정책은 북한과 경제협력으로 동반성장하면서 평화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과정을 관리할 것인지 적절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해법을 찾지 못한다.

진보진영의 유화정책은 남한이 선을 배품면 북한도 선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한다. 이런 믿음에 따라 진보정권은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제공했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산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후원을 했다. 북한은 한편으로 평화적인 공존과 통일을 운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소화화, 핵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미사일(SLBM)등의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동맹으로 위협을 받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남한이 한미동맹을 폐기하더라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믿음이 없으니 한미동맹과 핵무기 포기를 기대하기 힘들다.

남한은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언]

과거를 보존하자



조동준 (의대 57)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된 한국인의 미국이민역사는 이제 100년이 지난지 오래며 도산 안창호, 현준 목사 그리고 미국전쟁 영웅 김영옥 대령, 그리고 David Hyun 등등 한국의 자존심을 위해서 일하신 존경스러운 선조님들이 하나 둘 하와이에서, 그리고 이곳 L.A 에서 우리결을 속속 떠나가신지 오래건만, 훌륭한 선조들의 업적을 되돌아 볼 길이 없어, 우리 후손들은 자신의 뿌리마저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으니, 창피하고 슬픈 일이다. 우리의 산 역사의 박물관 같은 수잔 안 Cutty 여사도 작년에 100세를 넘기고서 L.A 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미국에 이주해 온 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박물관, 와싱턴DC 스미소니안 박물관, 보스톤의 케네디 대통령 기념 박물관, 하와이 진주만의 아리조나 전쟁기념관등을 방문하면서 모두가 그 시대의 역사, 문화 및 유산을 보존하면서 후손들에게 교육의 목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곳이 박물관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어느 도시든 방문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바로 그곳의 박물관을 찾아서 그곳의 문화를 엿보는 것이 습관화 되어 버렸다. 이곳 L.A에서만 해도 L.A County 미술박물관, Getty 미술박물관, 닉슨대통령 Home and Library, Ronald Reagan 대통령 기념박물관 등 많은 박물관이 보이지만, 필자에게 가장 눈에 띄는 박물관은 L.A의 Little Tokyo에 세워진 일본 박물관(Japanes American National Museum)이다.

해방위체제 구축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패트리엇 미사일로 방어하고 중장거리 고공미사일은 사드(THAAD) 로 대응하자는 것이 보수정부의 입장이다. 그런데 진보진영은 사드가 한국보다는 미국을 위한 방위체제이고,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부추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동시 한미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대북강경책을 추구하는 보수정권을 교체하고 사드배치를 무산시키는 동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재개하여 평화적인 공존과 통일을 추진하자는 정책노선을 택하고 있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기대하기에는 남북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있다. 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통일 협상과정에서 주도권 분쟁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내부적인 붕괴 가능성이 고조하고 있는 이 시기에 협정을 재개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고공미사일이나 핵무장장수함에 대응할 수 있는 해방위력 없이 통일하자는 것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굴복하자는 말과 같다.

이 시점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자체적으로 해방위체제를 구축하든가 아니면 현존하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국제적인 대북제재에 참여해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내부적인 붕괴가능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위체제와 붕괴시 핵관리 등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힘들니 한미동맹을 지키며 극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울드도미니온대학 국제경영전략 명예교수〉

17만이나 된다는 한국계 입양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향해서, 뿌리교육을 강조하지만 한미박물관이 있다면, 뿌리교육의 산 교육장으로서 그 의미가 클 것 같다. 박물관은 후손들의 문화적 귀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그리고 한인사회로부터는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으리라 생각된다. 이제는 광복 70년이라며, 치욕적 한일합병 100년이 지나다니, 과거의 깨어진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데 도움이 이 된다면 한국박물관 건립은 이곳에 사는 우리들 몫이라 생각된다. 이땅에 우리 문화의 뿌리를 내려야 하며, 긍지를 심어야 한다.

과거는 우리의 유산이며, 현재는 우리의 책임이요, 미래는 우리의 도전이란 말이 있다. 이제는 넓은 global community에도 훌륭한 후손들도 많이 살고 있다. 한미박물관 건립시기가 된 것 같다. 단지, 단합하지 못하는 한인민족의 결함이 지난 25년 세월을 허송해 버렸다. 1992년에 David Hyun을 이사장으로 박물관 건립위원회가 생겼었는데, 몇사람의 좁은 생각의 희생물이 되어버렸다. 나도 창립이사에, 모금위원장으로 일한 적이 있다. 하루 빨리 한미박물관이 L.A 나 New York 같은 후손이 모여사는 곳에 10년이고 20년 후에라도 세워지기를 바란다. (사진: 서울대 박물관)



모교총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150억원 쾌척

10년간 매년 15억원씩 모교 발전에 밑거름 기대

모교동창회(회장 서정화)가 매년 15억원씩 10년간 총 150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교에 쾌척하기로 약정했다.

지난 7월 27일 모교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정화 회장과 성낙인 총장을 비롯해 황인규 기획부총장, 이효원 상임이사, 박승희 총동창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서 회장은 “모교를 지원하는 모든 후원 사업과 전폭적인 지지는 총동창회로서 당연히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도리”라며 “이번 기금이 서울대가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에 공헌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쓰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의 대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성 총장은 “서정화 회장님을 비롯해 총동창회에서는 모교 발전을 위해 매년 거금을



서정화 총동창회장(우)과 성낙인 모교 총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원해주시어 서울대 전 구성원을 대표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에 헌정해주시는 기금은 서울대가 국내 최고 대학으로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모교는 총동창회의 이번 지원에 따라 조성된 150억원을 장기 발전 프로그램의 학술연구기금 및 선한 인재 장학금에 사용할 예정이다.

젊음이 넘치는 경영대 교수 밴드, G.A.ROCK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제자들에게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들이 젊음이 넘치는 밴드 ‘G.A.ROCK(교수의 G, 아저씨아줌마의 A와 ROCK의 합성어 - 이하 가락밴드)’을 결성하였다.

현재 구성은 송인성 교수(베이스 기타, 밴드 회장), 김우진 교수(리드 기타), 박진수 교수(드럼), 배종훈 교수, 유병준 교수, 황인이 교수, 박소정 교수, 조승아 교수(이하 보컬), 김수욱 교수(매니저), 박선현 교수(비디오 촬영), 이우종 교수(행사 진행), 신서빈 학생(경영대학, 13학번) * 김소연 학생(경영대학, 14학번) (꺾임 키보드)로 되어 있다.

2013년 당시 경영대 부학장이었던 박진수 교수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시작된 밴드는 2014년 새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첫 공연에서 첫 노래를 시작하자 1분도 채 되지 않아 학생들이 무대 앞으로 몰려오는 예상치 못한 큰 환호를 받았을 때 그간의 고생은 잊혀지고 보람을 느꼈죠. (송인성 교수)” 밴드를

하기 위해 따로 드럼 레슨까지 받은 박진수 교수 또한 감회가 남달랐다고 한다. “드럼을 배우는 기간에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주치의의 외출 허락을 받아서 매일 같이 나가서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준비했던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미칠 듯한 환호를 해주니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몰려와서 환호를 해주는 것을 먼저 기대하기도 해요(웃음).

(박진수 교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공연에 참여하고나서는 학생들이 “교수님 밴드 공연하시는 모습,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하며 인사를 먼저 건넬 때 너무 반가웠고, 이런 공연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이 생겨나서 뿌듯한 마음이 느껴졌다고 한다. 한편 경영대학 학생 밴드인 B.A ROCK과도 꾸준한 교류를 갖고 있다. 두 밴드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공연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송인성 교수는 “가락에서 드럼을 담당하고 있는 박진수 교수는 B.A ROCK 학생들에게 밥이나 술을 사주느라 매우 바쁘다.”며 웃음 짓는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교수님들의 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가락밴드의 G.A는 더 이상 교수,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라, Give Affection의 G.A로 느껴졌다.

김동욱(경영 11, 홍보팀 학생기자)

통합개교70주년 홈커밍데이 참가 안내

모교 서울대학교가 통합개교 70년 고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 13 대 미주동창회에서는 이 뜻깊은 행사에 모교 국제협력본부와 총동창회의 지원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아래와 같은 2박 3일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정안내〉

10월 15일 (토)

아침 서울 시내 관광 (총동창회 제공 선착순 24명)
저녁 만찬 (미주동창회장 제공)
숙소 호암 교수회관 체크인 (총동창회 제공 방 10개)

10월 16일 (일)

홈커밍데이 행사
저녁 만찬 (모교 총동창회 제공 장소: 호암교수회관)

10월 17일 (월)

오전 자유시간
점심 식사 (학생식당) (총장실 제공)
관정도서관과 박물관 투어 (총장실 제공)
호암 교수회관 체크 아웃.

*모든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미주 동문님들의 편의에 따라 편리하신 시간에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허유선 특별사업국장 973-865-1749 / general@snuua.org

분당서울대병원 베트남 교민 원격의료장비 구축

분당서울대병원이 원격 화상 건강 상담 서비스의 영토를 베트남까지 확장했다. 베트남 재외국민은 9월부터 화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6일 베트남 호치민시의대병원에서 ‘대한민국 재외국민 디지털 헬스케어센터’ 열린 개소식엔 분당서울대병원 전상훈 원장과 나기영 대외협력실장, 응웬호앙백(Nguyen Hoang Bac) HCMC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외공관 화상의료상담 사업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민생활 중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실증사업’의 일환이다. 고화질 원격 상담이 가능한 최신형 화상 장비를 구축, 9월부터 호치민시 3곳에서 연말까지 150회 이상 재외국민의 건강관리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국가의 재외국민은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때 의사전달이 어렵고 국내와 의료환경이 달라 병원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디지털 헬스케어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는 재외국민의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불필요한 병원진료 혹은 약물 사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6월 비동문(경북의대 졸)으로 병원장에 취임해 화제가 되었던 전상훈 원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의 수준 높은 진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상의 건강 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평가·진료·사후관리까지 전주기 건강관리를 실현하는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하계강좌



서울대학교는 ‘제10회 서울대학교 국제하계강좌 입학식’을 2016년 6월 28일(화) 관악학생생활관 가운데홀에서 개최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본교 국제하계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온 학생들을 환영하면서, 21세기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지식 허브를 지향

하는 서울대 하계강좌 기간 동안 스스로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며, 차별화된 많은 본교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한 단계 더 세계 시민으로서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서울대 국제하계강좌(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는 해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서울대에서 교과과정 이수 및 문화 체험에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난 2007년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약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올해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정치·경제와 한국학, 한국어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 교과목이 개설되었고, 6월 27일(월)~7월 29일(금) 진행되어 DMZ 탐방, K-Pop 관람 등 다양한 문화체험이 제공되었다.

〈서울대학교 홍보팀〉

모교 시흥캠퍼스 엇갈린 반응



8월 22일(월) 서울대와 경기도 시흥시 및 ‘배곧신도시 지역특성화 사업자’ 간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한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실시협약은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 조성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복합연구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실시협약은 시흥캠퍼스 사업 추진의 본격적 시발점으로서 서울대와 시흥시, 지역특성화 사업자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실시협약 체결로 서울대는 본 사업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시흥캠퍼스 조성에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시흥캠퍼스는 올해 하반기에 착공해 2018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대는 캠퍼스 부지 662,009㎡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캠퍼스 시설지원금 3,00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 개발이익 범위 내에서 1,500억 원까지 추가 확보도 가능한 전망이다.

한편 8월 30일 모교 일부 학생들이 지역개발추진 장사꾼들과 타협한 시흥캠퍼스의 전면철회를 주장하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본부의 계단 폐쇄와 엘리베이터 전력차단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24 시간 천막농성에 들어간 사태도 발생했다. 김보미 총학생회장과 학생대채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실시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나 총장은 커닝 책임자들이 아무도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연좌를 통해 실시협약 철회와 총장의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으나 기획처장은 ‘실시협약은 밀실체결이 아니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유감스럽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를 맞을 준비를 이미 마친듯 거리표지판(사진)을 내건 시흥시의 모습과 학생들의 반대가 대조적이다. 〈대학신문과 한국내 언론 참조〉

“서울대 합격했는데, 왜?”

입학 포기생 5년 연속 늘어...올 346명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매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대가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생 중 입학을 포기한 학생은 346명이었다. 이런 추세는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2년 330명, 2013년 326명, 2014년 339명, 지난해 317명으로 매년 300명이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했다.

올해 단과대별 입학 포기생은 공대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연대(48명), 간호대(33명), 농생대(27명) 등이었다. 자연계열 단과대에서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온 것이다. 2012년 입학 포기생이 122명이었던 공대는 2013년 135명, 2014년 136명, 지난해 13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인문계열 단과대의 합격 포기자는 비교적 적었다. 올해 인문대, 사회대, 경영대의 합격 포기 학생 수는 각각 8명, 5명, 2명으로 한 자릿수였다.

입시전문가들은 자연계열의 입학 포기생이 속출하는 이유로 ‘취업난’을 꼽았다. 의대·치대·한의대 등 취업에 직결된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것이다. 한 입시전문가원 대표이사는 “입시제도 변화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 중 순수학문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을 뽑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공대 관계자는 “공대 지원 학생이 다른 학교 의·치대 계열도 겹쳐서 지원하다 보니 최근 합격 포기가 계속 늘어난다”며 “고등학생에게 공학이 뭔지를 알려주는 자체 캠프 등을 운영해 공학을 전공할 동기를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 고 모 집 합 니 다

10월호 특집으로 ‘내 가슴 속 한편의 책’을 모집합니다. 동문님 각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책 한편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간단한 책 소개도 좋고, 독후감(300단어 이내)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원고 -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철학, 역사, 문학 등, 다양한 분야로 독자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500 단어(글자수 2000

자) 내의 글과 필자 사진 한장(고화질)을 보내주세요. ‘이달의 사진’과 ‘서울대 학창시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 앨범 사진을 스캔하거나, 셀폰(고화질)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고 동창회에 대한 질문이나, 주소정정, 회비/후원금 등의 사무적인 일은 general@snuua.org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부 소개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Benjamin Franklin Parkway



Independenc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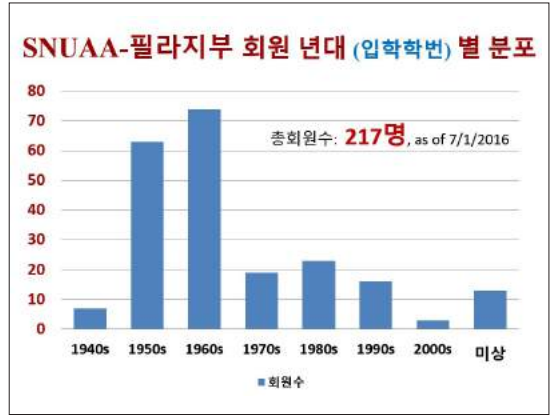


Liberty Bell

1. 동창회 설립 연혁, 동창회 멤버는 몇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연령분포? 확보된 이메일 주소 갯수?

필라동창회는 39년전인 1977년에 설립 (회장: 임덕상 동문, 공대)되었고 최정웅 현 회장까지 29분이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메트로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 뉴저지 주, 델라웨어 주를 cover 합니다.

필라동창회 멤버는 250여명이고, 보통 모이는 숫자는 70~80 여명이며, 연령분포(도표)는 1940년대 학번 8명, 50학번62명, 60학번 76명, 70학번 19명, 80학번 22명, 90학번 18명, 2000 학번 3명, 미상 12명입니다. 확보된 email 주소는 190여개가 있습니다.



2. 동창회의 그 동안의 활동 상황 (적당한 사진 여러 장: 피크닉, 음악회, 전시, 파티, 봉사활동, 강연회 등..)

주된 활동은 정기총회 및 연말파티 (12월), 입시총회 (7-9월, 6-7월), golf 대회 (10-11월 추계대회, 5-6월 춘계대회), 장학사업, 음악회 및 전시회 후원, 강사초청강연회) 등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서울대 동문들의 음악회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회에서 개최한 적도 있고,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종족을 초월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전

개해 지역의 첼튼햄하이스쿨에는 'SNU Scholarship'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의 감사편지들도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순신' 주제로 에세이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회기에 따라 동창회 소식을 '필라춘추'라는 뉴스레터로 만들어 동문들에게 배포합니다.



3. 동문들의 삶의 모습들 (연령 분포, 직업, 취미, 사회봉사, 교육 등)

미국 독립의 시발점인 필라지역은 교육, 의료 및 제약, IT, 서비스산업 등이 발달한 동부의 유서깊은 지역으로 다양한 직업을 가진 동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 활약하고 있으며, 음악,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하게 기반이 조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나 물가 등이 타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만끽하며 취미생활들을 즐기는 편입니다. 특히 필라동창회가 cover 하는 지역에 UPENN, Drexel, Temple, Villanova 등 종합대학과 Swarthmore, Haverford, Brynmawr 등 전국적으로 톱 상위랭킹의 칼리지들을 위시하여 Curtis 음대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 The University of the Arts 등의 미술대학, 9개의 Law Schools, 7개의 Medical Schools, 기타 70여개의 대학들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관련 직업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구 1인당 대학 수가 가장 많은 도시로 가히 교육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4. 동창회가 설립된 후 이제까지 해온 일 중에서 자랑스러운 일은? 타 지부에도 권하고 싶은 것은?

정관에 회원간의 친목, 모교발전에 기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Community Service)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재필센터, 필라여성회 (가정상담소), 한미개발봉사센터, 펜아시아 복지원 등의 기관에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동창회 차원에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내에 Curtis 음대, Philadelphia Orchestra 등 음악관련 infra가 조성되어 활발한 음악활동에 음대동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필라지부가 관심을 갖고 후원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5. 미주동문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지역, 문화/정신적 가치, 교육 역사 등. 이 중에서 특히 지역을 상징하는 단 한가지를 든다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이유는?

미국이라는 국가탄생의 산실을 맡았던 필라델피아는 독립전쟁의 유물들과 유적지가 풍부합니다. Liberty Bell, Independence Hall,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등, 곳곳에 산재한 독립전쟁의 유적지들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 뉴잉글랜드와 기타 지역으로부터 몰려든 퀘이커들이 세운 도시 필라델피아. 이들 중 대표적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최초의 은행, 보험회사, 출판사, 도서관, 우체국, 피뢰침을 비롯한 수많은 발명,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5인중 한명, 아이비리그에 속한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 설립 등으로 유명합니다. 필라 시청사 꼭대기에 동상(사진)이 서있는 윌리엄 펜(초대총독) 이름에서 펜실베이니아라는 이름이 시작되었고, 이 동상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불문율때문에 필라의 스카이라인은 그다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필라델피아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예술품은 Barnes Foundation 입니다. 파리의



Franklin Institute



Barnes Foundation



Longwood Gardens



Museum of Art



Rodin Museum



Valley Forge National Historical Park

'The Musée d'Orsay' 다음으로 인상파 그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총2000 여점중 600 여점) 반즈미술관은 Dr. Barnes 개인의 컬렉션입니다. 이 외에도 'Philadelphia Museum of Art'와 조각가 로댕의 진품 100여점을 보여주는 'Rodin Museum' (바깥 입구의 'The Thinker'와 건물입구의 'Gate of Hell' 모두 진품들입니다) 등 각종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매년 졸업한 자리가 비어아만 그 자리를 Full Scholarship 학생으로 채우는 'Curtis Institute of Music'은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해 오고 있습니다. 'Long Wood Garden'은 나일론을 만들어 세계 제일의 Chemical 회사를 이루어 낸 Dupont Family의 별장이었던 곳으로 1,000 에이커가 넘는 광활한 면적에 온갖 진귀한 식물과 꽃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6. 동창회 운영에 어려운 점? 미주총동창회 본부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민세대가 나이가 들어가고 젊은 세대 회원의 영입이 시급한데, 젊은 세대의 필라 유입이 약한 편입니다. 필라지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같이 고민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7.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회칙에 따른 '장학위원회'와 '나눔위원회'를 설치하고 활성화하자는 결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지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월의 평의원회의에서 의결된 '나눔위원회 구성'안이 현 13대 미주총동창회(손재욱 회장) 본부가 소재한 필라델피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회는 여러기금의 존재로 혼란을 야기하는 장학사업을 단순명료화해서 효율적인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9. 기타, 하고싶은 말

필라델피아 출신의 손재욱 회장이 이끌고 있는 미주총동창회와 필라지부는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갖고 필라지역 뿐 아니라 미전역의 서울대 동문들의 안위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회기에도 미 전역의 동문들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0. 동창회보의 개선점은?

"매회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로 새롭고 유익한 동창회보를 제작 배포하는 수고를 감사합니다. 한편 젊은 세대의 동문들이 더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보를 통해 미주 동문들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애환을 나누는 장이 활발히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11. 회장 한마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직을 맡게 된 최정웅(공대전기과 64) 인사드립니다. 미주총동창회가 필라에 있는 동안 함께 동문 여러분과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임원명단과 연락처:

회장: 최정웅(공대 64)
전화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수석부회장: 박혜란(음대 84)
전화: 215-499-0320
Helen4music@hotmail.com





성연경 (가정대77)

한 사람이 각자의 수명에 따라 평생 평균 60,000에서 90,000끼니의 식사를해야 한다고 한다. 이 엄청난게 많은 양의 음식은 인체의 생명 현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입을 통해 평생에 걸쳐 몸 속으로 들어 보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매 번의 끼니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먹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된다. 직업상 내 집 보다는 남의 집 식단을 놓고, 중요한 영양소가 많다니 적다니, 영양사로서 잔소리를 하면서 살아 온지 삼십 년이 넘어간다. 나름대로는 내가 속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배우고 느낀 대로, 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선의의 잔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기준에서 '배우고 느낀 대로, 옳다고 생각한 바 대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고 또 먹여 왔을까? 비록 물리학이나 수학처럼 전체에 걸쳐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비교적 분명한 분야는 아니지만, 식품 영양학에도 내면에 흐르는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알게 되었다. 너무 간단하고 심오한 원리가 인류 역사 이래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는 지금도 깜짝 놀라고 있다.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양보다는 질에 대한, 그리고 이왕이면 맛을 더 원하는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한 가지 예로 수 십년 전부터 미국도 치킨과 도넛, French fries, 쿠키, 버터와 margarine 에 숨어있던 saturated fat 과 transfat 그리고 cholesterol 에 대한 염려가 차츰 사회적 문제로 크게 드러나기 시작한다. 비만과 심장병, 당뇨병 및 암의 발병률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늘었기 때문이다. 연구는 계속되면서 음식 속의 콜레스테롤

의 양이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과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는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계란을 하루에 하나 이상을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이제는 계란은 3개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떤 연구는 심지어 콜레스테롤과 심장 질환과는 생각만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도 한다. 과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더 살이 빠질까?

우리는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음식을 식구들의 밥상에 올려보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몸에 좋다고 발표된 음식을 길게는 몇 년을 열심히 먹다 보면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또 나온다. 여태까지 좋았던 음식이 이제는 별로 효과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먹으면 해롭기까지 한다고 한다. “아이구머니! 이걸 어쩔다. 좋다고 해서 일부러 더 많이 먹었는데,” 이렇듯 새로 나오는 실험 결과에 따라 어제의 보약이 오늘의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또 다시 새로운 영양제로 돌변할 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다고 좋다는 음식이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 안 먹을 수도 없다.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상 자신있게 쓸 수 있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늘 느끼곤 했었다. 그러던 와중에 식품 영양학에도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간단한 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중용의 원리(Golden Mean Principle)였다.

“ Eat in variety, in proportion, in moderation ”

옛날부터 동양 사상에서는 중용이라는 말을 썼고 서양 철학에서는 Golden Mean이라는 말을 썼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용의 원리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 건재하고 있었다. 공자, 석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중용이라는 원리는 ‘과다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 만용과 비겁의 사이, 극단과 극단의 사이, 교만과 비굴의 중간, 남비와 인색 중간’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대단한 Golden Mean Principle은 영양학에서는 어떤 의미일까?



현재 USDA의 Dietary Guide-line이 있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의 영양학자 Dr. Atwater 를 잊을 수 없다. Dr. Atwater 는 영양학에서는 에디슨 만큼이나 선구적인 사람이었다. 1902년에 그가 쓴 Farmers Bulletin을 요약하면 이렇다: 비교적 저렴한 값의 다양한 음식 재료(in variety)를 서로의 비율을 맞춰서(in proportion) 맛있게 조리하여(in wholesome and appetizing cooking method), 적절한 양(in moderation)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 건강의 원리다.

언뜻 보기에는 세 살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들어서 다 알고 잘 실행이 되고 있는 얘기 같지만, 미국이나 한국의 지난 30년간의 식습관의 변화를 보면 그렇지만

도 않은 것 같다. 가격의 경제성을 생각해서, ‘남기면 아까우니까 다 먹어 치워야지’, 혹은 입에서만 당기는 맛이 있는 음식이나, 소문엔 몸에 좋다는 음식은 나도 모르게 많이 먹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위한 식단에서는 “Eat in variety, in proportion, in moderation”을 실천하

기 어렵다. 몸에 좋다는 음식은 아무래도 편식을 시키더라도 많이 먹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이나까.

얼마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유명한 한국 노래 강남 스타일의 가사에 보면, “.....갈 때까지 가 볼까” 하는 구절이 있었다. 술 자리에서 남자들이 폭음을 하기 전에 주로 외치는 구호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든 양 극단으로 치달으면 건강을 해치는 수가 많다는 것은 이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에 옮기는 게 어렵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식품이나 영양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 좋은 식품이나 영양소는 아마도 불로초처럼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음식이든 꼭 비싸지 않아도, 골고루, 균형있게, 적절한 양을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각 영양소의 해로운 점도 서로 상쇄되고, 미약하던 장점도 서로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식품 영양학의 Golden Mean Principle의 숨겨진 비밀스런 이유라고 한다. Golden Mean Principle 을 염두에 두고 음식을 대한다면, 광고비 때문에 비싸지만 하고 효과도 잘 모르는 소문난 보약보다 훨씬 건강에 좋은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가 될 것 같다.

이순태 교수는 “이 2가지 치료제는 이상 반응 발생 빈도와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가면역 뇌염 치료에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 연구는 뇌기능이 한번 손상되면 치료가 어렵다는 기존 개념을 극복한 결과로, 자가면역 뇌염 치료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다”며 “자가면역 뇌염은 심각한 뇌기능 손실을 유발하지만, 조기에 진단해 빠르고 정확하게 치료하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가면역 뇌염에서 다양한 면역치료제 사용의 인증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치료 방침을 정립하는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계획 중이다. 연구결과에는 ‘신경학-신경치료(Neurology·Neurotherapeutics)’ 저널에 발표됐다.



이순태 (의대 95)

자가면역뇌염 치료법 개발

모교 이순태 교수팀

간 약 1200명 의심환자가 발생한다. 이 중 확진 환자는 100~200명으로 추정된다. 스테로이드나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으로 일시적으로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초기 연구단계다.

연구팀은 자가면역뇌염 환자에게 표적 면역치료제인 리톡시맙과 토실리주맙을 투여하고, 기존 치료를 유지한 그룹과 비교했다. 기존 면역치료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 55명에게 리톡시맙을 투여했다. 이중 60%인 33명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호전됐다. 리톡시맙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27명 중에서 22%인 6명만 호전됐다. 리톡시맙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 30명에게 토실리주맙을 투여했다. 60%인 18명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좋아졌다. 두 가지 치료법을 조합해 80%가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이상 반응 발생 빈도와 심각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ETNEWS)

IM Foundation이 보여준 나눔

남가주 IM Foundation (대표 임낙균(약대64))이 제공한 다문화가정 학생 체협단의 16박 17일간의 표정과 소감을 모아 보았습니다. 기획부터 멋진 프로젝트를 더 멋지게 마무리 지으며 '나눔'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신 임낙균 대표와 재단 관계자들,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귀중한 체험을 간직하게 된 학생 여러분, 취재를 담당한 백옥자(음대 71) 조 직국장, 뒤에서 수고하신 동문들을 비롯해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임낙균 대표 소감



이번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학연, 지연, 혈연과 종교적인 이념 조차도 떠나서 100% 순수하게 봉사하는 데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한국에서 초청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유럽내 국가간에 혼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한국, 중국, 일본사람들이 서로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도 인정하면 조그마한 섬하나 가지고 총뿌리나 겨누고 샷대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교포들이 신문을 보고 자원봉사나 식사(북창동 음식점 이태로(법대64)회장)와 3곳, 쌀, 강연(양민 공대77), 숙소(김지영 사대69), 강신용(사대73)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았다. 한국문화원(김낙중(법대83)원장) 방문과 나성 총영사관(이기철(법대77)총영사) 방문 등으로 학생들의 기억에 길이 남을 것이다.

남가주 총동창회 (김병연(공대69) 회장)에서 받은 선물과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선물들이 학생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미국 초등학교 선생님(사진)들의 3주간의 영어 무료 강의의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며,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을 감동에 베풀게 하였다.

이번 행사에 협조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다섯 동생들이 부엌에서 일하며, 섭외하며, 프로그램마다 따라 다니며 도움을 제공하고, 버스 Van 이 stop 되었을 때의 급한 상황에서도 함께 협조하는 모습에서 서로 형제 간의 우애가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감사하며, 즐겁게 봉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

I.M. Foundation 대표 임낙균(약대64)

인솔 교사들 소감

이번 체험을 통해 아이들은 미국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을 배우고 특히 감사를 표현하는 태도를 몸소 익히게 되었고, 18일간 미국생활에서 친구들과 부대끼며 사랑과 정 그리고 협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긴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며 부모님에 대한 그림움과 사랑을 깨달았을거라 생각합니다.

분향초등학교 교사 권태우

한동안 전라남도 전역에 행복했던 미국이야기가 꽃을 피우겠네요. 선생님들도 행복한 추억이 많이 쌓였다 합니다. 기내식을 두번이나 먹고도 배고프다해서 식당으로 향합니다.

울어름에 아이들이 몸과 맘이 쑥 자랄 겁니다. 이래저래 쌓인 피로를 고국아이들 행복한 모습으로 잘 녹여 더욱 건강하시길 빕니다. 공항 1층에서 두 분이 손 흔들어 주실 때 아이들이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 감사함을 많이 기억하며 잘 자랄겁니다.

백운초등학교 교감 임미현

돌아가는 버스에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일일이 들었어요. 선생님들도 귀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많이 울었구요. 지금도 울고 있네요. 온 정성을 다해 살피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으로 이 먼 곳의 아이들이 꿈을 꼭 이룰겁니다. 힘 내십시오. 2016년 여름 스무 명의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을 모아 응원합니다.

삼학초등학교 교사 김유미



아이들이 그동안 많이 자랐네요. 버스 소음과 아이들이 우느라고 일을 잘 못했지만 다들 충분히 미국체험의 귀한 의미를 알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 사무관 이완숙

18일이 체험학습으로는 길지만 아이의 배움의 입장에서 보면 긴 삶속에서 활나의 시간이지요. 우여곡절도 있고, 해프닝도 있었으나 거두절미하고 아이들과 사전 모임부터 함께 호흡해 온 저는 단연컨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전라남도 교육청 당면채 교육감, 아이예재단 임낙균 회장 두 분을 기억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이제부터 할까 합니다. 아이들은 분명 성장하였고, 변화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인솔하신 선생님들, 전라남도 교육청, 아이예재단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높은 활동을 위해 생각이 넓어졌어요.

분향초등학교 교사 권태우

[건강]



서울대병원(원장 서창석(의대 79))은 신경과 이순태(의대 95), 주건(의대 91), 이상건 (의대 81)교수팀이 뇌손상을 일으키는 자가면역뇌염 치료법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가면역뇌염은 우리 몸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뇌를 공격하는 질환이다. 기억소실, 의식저하, 뇌전증발작, 이상행동 등 증상을 나타낸다. 2007년 항NMDA 수용체 뇌염 진단법 개발 이후 다양한 종류 자가면역뇌염 환자가 발견된다. 국내에서도 연



남가주 : Hollywood Bowl 가족의 날



한 여름의 태양 별이 찬란했던, 그리고 무척이나 뜨거웠던 지난 8월 6일, Hollywood Bowl에서는 남가주 총동창회 주최로 가족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에 올해는 25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피크닉 장소의 푸르른 나무들이 드리워 준 그들은 시원하여 무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하였고, 동문들은 담소하며 우애를 다졌다.

민일기(약대 69)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김병연(공대 68)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남가주 총동창회 가족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과 수고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준비된 에피타이저와 음식을 드시고, 차이콥스키 음악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abor Day 연휴에 있을 Mammoth 가족 캠핑(9월 3일~5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 총동창회장으로는 오형원(의대 51), 방석훈(농대 55), 권혁창(법대 57), 한종철(치대 62), 김상찬(문리대 65), 서치원(공대 69), 이서희(법대 70), 박혜숙(간호대 69)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초대 손님으로는 김경자 (LA영사), 김기춘 (LA 영사) 부부 등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티켓 담당은 염인숙(가정대 78) 가족의 밤 부위원장, 에피타이저 준비는 안혜정(가정대 77) 가족의 밤 위원장 주도 하에 박제환(문리대 75) 부부, Mrs. 홍성선(약대 72) 등이, 다과 준비는 홍성선(약대 72) 사업국장 등이 수고하였다. 또한 와인을 도네이션한 동문은 김상찬 상임이사, 민일기, 홍성선, 이학진(농대 71) 행사위원장 등이고, 홍성선, 조무상(법대 70) IT 위원장이 VAN으로 음식을 운반하는 등 임원 여러분들이 수고했다.

남가주 : 시네클럽 야유회

지난 7월 23일 시네클럽(영화모임)에서는 야유회가 있었다. 이날 참석한 회원은 이해영(공대 56) 부부, 김병연(총동창회장, 공대 68), 김동석(전 총동창회장, 음대 64), 민일기(총무국장, 약대 69) 부부, 홍성선(사업국장, 약대 72) 부부, 장진성(약대 66), 지종근(농대 56) 부부, 신정연(미대 61), 한귀희(부재무, 미대 68), 한석란(서기, 미대 72), 홍선례(문화위원장, 음대 70) 등 15명이었다. 아침 11시에 김동석 동문 집에 집합하여, 두 대의 Minivan에 나누어 탑승하고 Dana Point로 향했다. 모든 안내는 이해영 회장의 인도 하에 이루어졌다.

El Torito Restaurant 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Dana Point Harbour 를 구경했다.

서울대미주동창회보 지부소식

와인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음악회장으로 향했다. 이 날의 음악회는 불꽃놀이와 함께 차이코프스키(Peter Ilyich Tchaikovsky:1840-1893) 음악을 연주하는 “Tchaikovsky Spectacular with Fireworks”였다. Gustavo Dudamel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연주로 “Capriccio Italien”과 발레곡 “백조의 호수” 모음곡이 연주되었다. “Capriccio Italien”은 차이콥스키의 수 많은 관현악곡 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는 매력적인 곡으로 알려져 있다.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전래 동화를 기반으로 하여 악한 마법사의 저주에 걸려 백조로 변한 오데트 공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발레 무용과 함께 연주되었다. 마지막에 “1812년 서곡”이, USC Trojan Marching Band의 출현과 함께 연주되면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온 하늘을 뒤덮으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1812년 서곡은 1880년 완공을 앞둔 모스크바 ‘그리스도 구세주 대성당’이 1812년 프랑스군 대후퇴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을 거행하기로 한 후, 차이콥스키에게 이 축제에서 연주될 곡을 의뢰하여 탄생된 관현악 서곡이다. 이 곡의 악기편성은 피콜로, 플룻, 오보에, 잉글리쉬호른, 클라리넷, 바순, 호른, 코넷, 트럼펫, 트럼본, 튜바, 팀파니, 트라이앵글, 탬버린, 스내어드럼, 심벌, 베이스트럼, 대포(실내 공연장에서는 컴퓨터가 만든 대포소리) 등이다.

이 곡은 3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 현악기로 연주되는 라르고의 성가 ‘신이 너를 보호한다’로 시작된다. 제2부에서 군대 북이 울리며 우군이 도착한다. 제3부에서 대포가 첫 포성을 터뜨리며 프랑스군이 격퇴되는 클라이막스가 시작되어 마르세예즈 선율은 사라진다.

이 곡은 매우 극적이며 악상의 전개가 절묘하여 표제음악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거론되며 미국 독립기념일 기

념식에서는 빠지지 않고 연주된다고 한다.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 5인조 등의 광신적인 민족주의가 음악계를 휩쓸고 있을 때, 이와 다르게 서구적인 전통에 바탕을 둔 보편적인 어법으로 음악을 작곡했다고 한다. 그는 러시아 국민악파의 5인조인 보로딘, 쿤이, 무소르그스키, 발라키예프, 립스키코르사코프 등의 공식적인 생각에 공감하지 못했고 순수한 감정의 표출에 중점을 두어 보편적이고 영원성이 있는 음악을 작곡했다. 그의 기교는 국민악파 5인조보다 우수하고 세련되어 있으며, 풍부한 감정과 깊이를 가지고 있다. 차이코프스키 음악의 공적은 교향곡과 발레음악 분야에서 두드러지며 국민주의 음악을 발판으로 서유럽 음악 전통을 발전시킨 저변에는 센티멘탈리즘이 흐르고 있어 19세기 러시아 시민 문화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

지휘자 Gustavo Dudamel은 베네수엘라 태생이며 El Sistema(마약과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구제활동)의 수혜자가 되어 바이올린 교습을 시작했고, 작곡과 다른 분야도 수감했다고 한다. 후에 El Sistema 창시자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등에게 지휘를 배우고, 불과 18세에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관현악단 음악감독이 되었다. 그 후 구스타프 말러 국제 지휘콩쿨에서 우승하는 등, 화려한 지휘 경력을 거쳐 2009년, 그의 나이 28세에 LA 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취임했으니, 세계적으로 파격적인 일이다. 이날 Dudamel의 음악은 항상 그렇듯이 라틴아메리카 태생의 젊은 지휘자답게 열정, 그리고 활력, 그 자체였다.

글: 홍선례 (음대70) 편집위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옆에 두며, 하늘 빛도, 바닷물 빛도, 파랑과 맑아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Ritz Carlton Hotel 아래 Salt Creek Beach Park, Treasure Island Park Beach 를 거닐며 산책을 했다. 무척 더운 날씨였지만, 삼삼한 바닷 바람을 마시며, 바다의 잔 내음을 맡으며, 바닷물에 발을 적시며, 모래발을 거닐며, 옛날 대학시절을 상기하기도 했다. 더위가 썩 가시는 듯 했다. Laguna Beach를 sightseeing하면서 지나가 Corona del Mar의 Inspiration Point로 가서 View Point와 Beach 를 두루 돌아 보았다. 노을진 바닷가에서 사진도 찍고 동문들은 친목을 도모했다.

Buena Park 근처 명동순두부 한식집에서 저녁식사 후 해산하였는데, 앞으로 영화모임에서 자주 야외모임을 가지며 바람을 쏘이자는 것이 모두의 의견이었다.

글: 홍선례 (음대70)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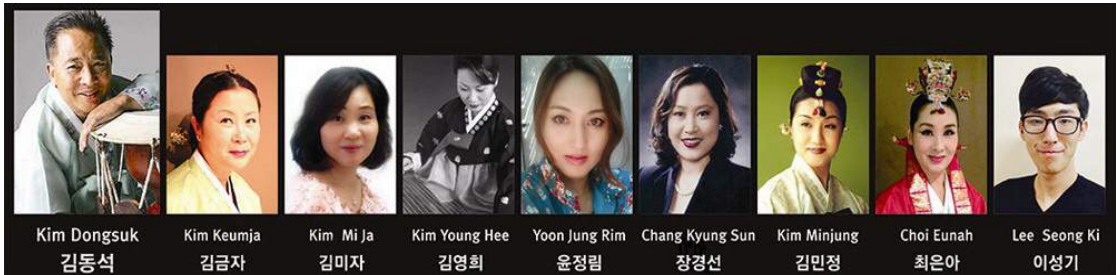


남가주 : 한국음악무용예술단 '정악과 정재' 공연

김동석 한국음악 무용예술단(단장 김동석, 음대 64)과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미주동문회(회장 김금자) 회원들의 ‘정악과 정재(Traditional Court Music & Dance)’ 공연이 지난 7월 22일 LA 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 법대 85) 아리홀에서 있었다. 서울 음대 동문으로는 김동석 단장 외에 김미자(음대 81), 장경선(음대 89), 김영희(음대 82) 등이 출연하였다.

‘정악과 정재’는 문화원의 공연작품 공모전인 ‘2016 Ari Project’를 통해 선정돼 아리홀 무대에 오르는 다섯 번째 공연이다. 한국음악과 한국무용을 교포 사회에 전파시키고자 크게 공헌해 온 김동석 한국음악 무용예술단과 국립국악 중·고등학교 미주동문회(회장 김금자) 회원들에 의해 한국 전통음악과 궁중무용이 소개되었다. 정악은 궁중음악과 민간 상류층에서 연주되어 오던 모든 음악을 가리키며 정재는 우리 춤의 본질을 담고 있는 궁중무용이다

글: 홍선례 (음대70)편집위원



남가주 : LELA ARTS FESTIVAL

LELA ARTS FESTIVAL이 8월 13일 부터 24일까지 PARKVIEW Gallery, LA에서 열려,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필리핀, 이란, 아르메니아 등 여러 나라의 화가를 작품 60여점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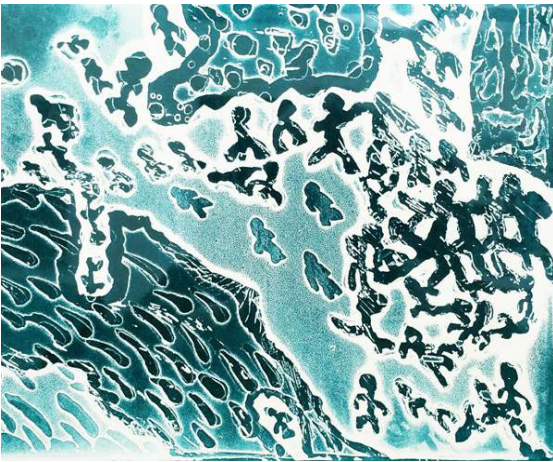
LELA ARTS FESTIVAL은 1996년 히데오 사카타, P. Khemraj, 요코 카미조에 의해 예술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설립자는 “점점 상업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모노 문화, 서양 중심의 예술현장을 보았다. 21 세기 현대 시각 예술의 세계를 형성하고 인종, 신앙과 국경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미술 커뮤니티’의 정신을 전달하기 위해 연례 국제 예술축제를 계속하고 있다.



김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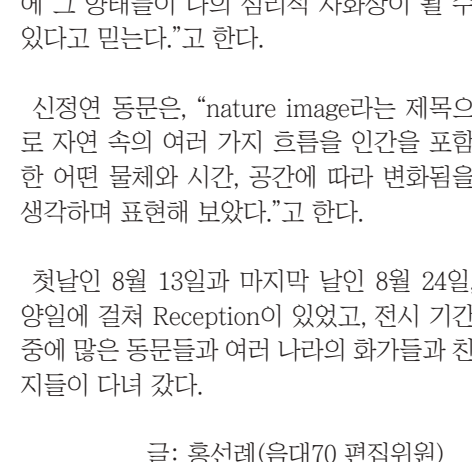
박영구



강영일



박혜숙



신정연

그것은 서양 뿐만이 아니라 동양 예술의 정신과 중앙 및 라틴 아메리카 예술의 감성도 소개한다. 평택과 로스앤젤레스 등 세계의 도시가 이 운동에 참여하여 글로벌 아티스트 사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 화가로는 박혜숙(미대 74), 김구자(미대 61), 강영일(미대 72), 박영구(미대 84), 신정연(미대 61) 등 미대 동문과 유혜숙, 최윤정, 유명하씨 등이 참여했다. 박혜숙 동문은 작품설명을, “색즉시공, 이것은 색깔이 있는 얼굴과 흰 얼굴은 동일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채워 있음과 비워 있음의 대비,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삶을 표현하려 했다.”고 말한다.

김구자 동문은,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무수한 별들

과 외롭게 떠있는 해와 달. 옛 고대 히랍인들은 믿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고유한 음을 방출하기에 서로 부딪치지 않고 조화롭게 회전할 수 있다고... 나는 이 아름다운 발상에 감정을 불러 넣고 색을 입혀 우주 환상곡을 만든다.”고 한다.

강영일 동문은, “낮선 땅 미국으로 삶의 터를 옮긴 후 학교를 다니면서 작품을 한 에칭 작품들이 30년간 있어져 묻혀 있었다. 30년 전 내 고국 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작품들을 하던 때가 문득 생각나 ‘Going Home’이라는 제목으로 선 보인다.”고 한다.

박영구 동문은, “천공의 구멍이나 나무들과 그 사이에서 유행하는 식물들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심리적 감정의 폭발과 같은 이미지를 통해 식물의 영혼같은 원초적인 생명력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 했다. 동시에 그 양태들이 나의 심리적 자화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신정연 동문은, “nature image라는 제목으로 자연 속의 여러 가지 흐름을 인간을 포함한 어떤 물체와 시간, 공간에 따라 변화됨을 생각하며 표현해 보았다.”고 한다.

첫날인 8월 13일과 마지막 날인 8월 24일, 양일에 걸쳐 Reception이 있었고, 전시 기간 중에 많은 동문들과 여러 나라의 화가들과 친지들이 다녀 갔다.

글: 홍선례(음대70 편집위원)

코네티컷 : 동문들 첫모임



에일대학교가 위치한 코네티컷 주 New Haven 지역의 동문들이 8월 27일 유시영 (문리대 물리학과 68) 동문

자택 (46 Pleasant Dr. Bethany, CT 06524)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40학년부터 80학번까지 10여명의 선 후배 동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유 동문택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앞으로 미주동창회 커네티컷 지부 결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 지역에 알려진 동문들은 20여명으로 에일대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현, 은퇴 교수들이 주를 이루고 CPA 등 일반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유시영 동문(사진 우)과 박용해(상대83 사진 좌) 동문을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선배그룹과 후배그룹을 각각 담당해 연락하고 10월 9일 유시영 동문 택에서 톱스터 파티를 겸해 모임 계획을 세웠다.

뉴욕 : 이사회/김도명 신임회장 취임



뉴욕동창회가 18일 뉴저지 포트리의 토피 연회장에서 정기 이사회 및 총회를 열었다. 이날 김도명 (농대70) 제38대 신임회장이 취임했고 김기택 동문과 조민형 동문이 사무총장에 김창수, 한경수 동문이 감사에 연임됐다. 동문회는 10월에 열리는 골프대회에 이어 올해 송년회를 윈즈 플러싱의 대동연회장에서 12월11일 열기로 했다.

골든클럽 산행

뉴욕지부 골든클럽 (회장 정인식 상대 58)의 여름 캠프이 Adirondack Lodge Campsite, Lake Placid 에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다. 첫날은 Heart Lake 주변 산책과 친목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둘째날 월요일 오전에는 Thunder Shower 예보도 있고 해서 서둘러 Cascade Mountain 등정을 마치고 1시 경에 캠프에 돌아와 일찌감치 점심 겸 저녁으로 삼겹살 구이를 마치고 Mt. Jo 로 산책을 갔는데 산이 높지 않아 완전한 등산 코스였다. 마지막 날은 두그룹으로 나누어 A 조는 ‘Avalanche Lake - Algonquin’ 으로 이어지는 12 마

일 loop-hiking 의 쉽지 않은 산행을 하였고, B조는 편하게 ‘Mt. Van Hoevenberg’ 하이킹 도중 상향버섯을 듬뿍 채취하는 즐거움을 가졌다.

뉴욕지부 골든 클럽은 1998년 윤정옥(약대50) 회장이 회장직을 마치며 몇몇 시니어 회원의 제안으로 시니어 친목 단체로 결성하고 ‘SNU 골든클럽’ 이라 명칭하였다. 2010년 홍종만(공대64) 총무가 주요 행사인 골프모임, 경조사 참여 등에 등산과 낚시를 추가해 2010년 6월 첫 정기 산행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준형 회장과 오랜 친구인 모교 임광수 동창회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참석자: 송학린 이진구 이경태 고희하 이석구 손영철(손정자) 김윤수(오남경) 홍종만(홍예경)

부고

홍석주(공대 화공과 1950, NY) 동문이 7월31일 별세하였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홍석주 박사님은 대학과 코닥연구소에서 후진양성에 힘쓰셨습니다. 유가족: 부인 신창휴(약대 53)
연락처: 914-779-9544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 세미나

9월 10일 장소 New Castle Library (425-255-0111) 지역 동포들에게도 공개하는 9월의 세미나 주제는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길어진 노년생활에 필요한 건강관리, 자산관리, 그리고 건강한 인간관계 관리 방법’입니다 초청강사는 변호사이며 창업 기술회사 CEO인 이제선 사장 (Firstech LLC. 창업자)과 Mrs. 이명자 박사입니다.
(문의: 김재훈 동문 425-786-7723)

워싱턴DC : 정기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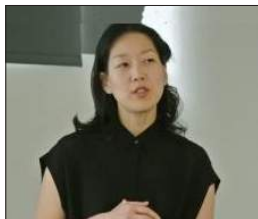
정기이사회 9월 10일, 10월 골프대회
(문의: 안선미 회장 347-776-0304)

뉴욕 : 제34회 탈북난민구출음악회

10월 2일 후러시 JHS 189 강당
(문의: 서병선 동문 212-567-6919)



워싱턴주 : SNU 포럼 세미나



시애틀 지역 SNU 포럼이 주최하는 7월의 세미나가 9일 뉴캐슬도서관에서 열렸다. 세미나 주제는 “스마트홈 보안및 개인 정보 보호 (Security & Privacy for Smart Homes)”으로 한국 카이스트를 거쳐 MIT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시애틀 인텔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긴 정재연 박사의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홈 (Smart Home)이란 각종 전자 기기 (예를 들면, 정보, 통신, 보안 및 안전 기기) 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인 주거 환경을 의미한다. 스마트홈시스템은 Wall Pad Controller를 중심으로 Service phone (주방 TV, 도어 phone 등), 제어 (control) 시스템 (Door lock, 조명, 가스, 난방, 에어컨등), 보안 (Security) 시스템 (motion detector, CCTV, 적외선 감지기, emergency call등)등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정보, 통신, 보안, 안전시스템을 Home Networking을 통하여,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는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줄여서 IoT)을 이용한 원격제어를 통하여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 스마트한 주거문화를 만들 수 있다.

스마트폰에 이어 제4차 IT 혁명으로 각광받는 사물인터넷(IoT)은 사물간의 통신을 통해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 받으며 현재의 인터넷에 더해 PC, smart phone, smart car, smart home system등 모든 것을 network로 연결하는 소위 Internet of Everything이 될 것이고, 앞으로 엄청난 경제가치창출이 예상되고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런데 사물인터넷(IoT)으로 사물간의 통신을 통해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 받으면서 각종 데이터가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를 비롯해 많은 중요한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받는 정보들이 보안위협에 노출돼 불법적으로 유출되거나 물리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Internet of Everything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 및 각종 정보 보안 문제는 사물인터넷(IoT)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이다.



이러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해킹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홈의 경우 스마트냉장고의 보안취약점을 통해 중간자 공격으로 메일계정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냉창고와 TV를 해킹해 75만건의 스팸메일을 발송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원격으로 NAS (Network-Attached Storage)에 접속해 시스템명령을 실행시키거나, 스마트TV와 공급업체 서버간 통신이 암호화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해킹이 가능할 수 있다. 스마트홈 보안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현재의 기술 개발 현황과 위에서 지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각종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며 정 박사는 “스마트 홈 운용에 포함되는 개인 정보가 해킹 당하거나 유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보안대책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글: 김재훈 (공대77)

샌디에고 : 카약 행사 후기



금요일 야근을 마치고 토요일 잠이 덜 깬 상태로 부랴부랴 집합 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미 도착한 선배님들께서 서로를 정겹게 맞아주었고 리우 올림픽을 화제로 재미있는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특히 뱃바의 얼굴도 보여서 (멀리 엘바인에서 오신 오중호 선배님 가족) 반가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오중호 선배님의 사방사방한 패션감각은 라호야의 따뜻한 아침햇살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역시 놀 준비를 제일 확실히 해온 것 같습니다.

디어 바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 조씩 태평양을 향해 돌진해서 나아가는 장면은 장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마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어부가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듯이 장엄한 자연 앞에 압도되기도 하고 각박한 일상에 지친 우리들을 풀어주는 자연의 인간적인 모습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막상 카약들이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깊은 바다로 진입하는 것을 보니 잠깐 무서운 느낌도 들었지만 그 긴장마저 우리의 재미를 극대화시켜줄 요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모두 5개조로 나누어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하 존칭 생략)

등락을 마친 후 Everyday California라는 카약투어 렌탈장소에서 헬멧, 구명조끼를 받아 입고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눈부신 바닷가를 보니 모든 잠이 달아나고 실감이 났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샌디에고에 있었구나~”

아름다운 여성 가이드 분이 워낙 재밌고 친절하게 교육을 해주셨는데 일상에 지친 저에게는 그 여유로운 표정을 본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약 10분간 교육을 마치고 노를 픽업하고 드

조두연 (수의대 62)/박성주(인문대 95) 조는 최연장/최연소 조였는데 조두연 선배님이 어찌나 열심히 노를 저으시는지 그 열정과 체력을 박성주 후배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박상호 (치대 80)/최영희 조는 가장 귀감이 되는 조였습니다. 아내를 위해 열심히 묵묵히 노를 젓는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박상호 선배님의 중간중간 힘들어하면서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 모습은 모든 남자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듯 했습니다. 이정석 (공대 87)/최흥수 (자연대 87) 조는 출발 때 바로 뒤집히면서 뒷 조에 약간의 무서움을 주긴 했지만 바로 극복하여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들의 자연을 즐기는 모습은

마치 도를 깨달은 사람처럼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제물의 경지를 보는듯했습니다. 임용갑 (공대 84)/ 오중호 (공대 90) 조는 베스트 레이저였습니다. 스피드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카약들과 접촉하며 엄청난 팀워크와 스테미너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자신을 극복한 사람들이며 진작에 올림픽에 나갔더라면 금메달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경희/오예림 조는 시종일관 아기자기하게 모녀간에 대화를 나누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땀이 없는 저에게는 참으로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먼바다로 나아가자 5개 조는 가이드를 중심으로 서로 합체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면서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굴 탐험은 물살이 빨라서 자원자만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무런 장비없이 바닷물에서 손수 카약을 밀고 안내하는 가이드의 수영 실력이 저희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부가 동굴탐험을 할 동안 나머지는 가이드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라호야 해안 집에 대한 얘기들을 재미있게 해주었는데 (샌드캐슬이라 명명하였던 어느 부자의 집 포함) 바닷길에서 바라본 내륙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중간중간 마주치는 바다새, 물개들은 저희의 친구같았습니다.

특히 바다에서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물개를 보고 임용갑 선배님은 가이드에게 물개는 어느 language를 사용하는지 너무 철학적인 질문을 해서 가이드를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날 만큼은 사람, 자연, 동물 구분 없이 하나의 통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지칠 때마다 자연의 범용한 현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었던 늙은 어부에 자신을 투영하며 인간의 나약함과 허무함을 극복해보려고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2시간에 걸친 투어를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피쉬타코, 버리토, 맥주를 마시며 점심을 먹으며 뜻다른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서정용 (공대 81)선배님께서는 바다에 가지 못했지만 행사 준비와 사진촬영 모든 준비를 수고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글: 박성주 (인문대 95) 총무
사진: 서정용 (공대 87) 부회장



김학천 (치대 70)

‘투금탄’의 형제들, 롯데의 형제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 일지춘신을 자규야 알라마는 / 다 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고려 말 문신 이조년의 유명한 시조인 ‘다정가’이다. 배꽃이 활짝 핀 달밤에 들려오는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봄의 정취에 빠져 있는 정한을 그린 노래다.

한 번은 이조년이 형 이억년과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황금덩어리 두 개를 발견했다. 둘이는 이를 하나씩 나누어 갖고 배를 타고 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갖고 있던 금덩어리를 물속에 던져 버리는 게 아닌가? 형이 깜짝 몰라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동생은 “제가 왜 황금의 귀함을 모르겠습니까? 한데 이 황금덩어리를 갖고 있자니 문득 ‘형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 돈을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하는 나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황금이 평소에 좋았던 우리 형제의 우애에 금이 가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버렸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들은 형도 갖고 있던 금덩어리를 물속에 버렸다. 이후 그 곳을 ‘금을 던져버린 어울’이라는 뜻의 ‘투금탄(投金灘)’이라 불렀다는 일화가 전해온다.

황금보다는 형제애를 더 귀하게 여긴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 그렇지 못한가보다. 돈 앞에선 피도 물도 없어서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돈 때문에 빚어진 이야기다. 방탕한 아버지는 세 아들을 버렸고 남의 집에서 자란 세 아들은 장성해서 돌아왔다. 그리고 아버지와 큰 아들 두 명과 고리대금업자의 첩인 그루센카의 삼각관계 틀 속에서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리고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인간의 가장 파괴적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다.

근자에 롯데그룹 형제들의 경영승계 암투를 보면서 두 이야기가 떠올랐다. 가난을 피해 19세에 현해탄을 건너가 겸 하나로 시작해 오늘의 거대 기업을 일구어낸 신석호 회장이 겸 제조사를 창업하며 회사명을 고민하던 중 불현듯 떠오른 이미지가 바로 ‘롯데’였다.

그는 ‘롯데’라는 이름이 떠올랐을 때 충격과 희열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 문학 지망생이었던 그가 유난히 애착을 느낀 작품이 바로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고 그 책의 여주인공 ‘샤롯데’의 매력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 이름 뿐 아니라 여러 제품 브랜드와 서비스 명칭들에도 ‘샤롯데’의 이름을 아끼지 않고 사용했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는

‘베르테르의 사람처럼 일과 삶에 열정을 다하라’고 말하곤 했다 한다.

그 열정의 삶 끝자락에 자식에게서 해임당하는 일까지 겪었다. 더 귀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값진 것이라도 미련 없이 버리는 이조년 형제와 돈을 위해 고려의 부친까지 동원해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형제들 보며 이번 논란이 우연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형제위수족(兄弟爲手足)’이라 하여 형제는 손발과 같아 한 번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므로 서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재벌가 형제들도 투금탄의 형제같이 ‘육 같은 형, 금 같은 아우(玉昆金友)’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무리한 바람인지도 모르겠다. 그들에게 아무래도 ‘형제는 타인의 시작’이라는 속담처럼 물보다 피가 아무리 진하다 해도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돈과 권력일 테니까.



우리 아이 에피소드

1. 2살이 막 되었을때 처음 달을 보았습니다. 반달이 아직 안되었지요
얼마 안지나 보름달을 보게되어 “저기 달있다”했더니 손가락을 가위모양을 만들
고는 “찔러”합니다.

2.곱하기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하무니! What is sixteen times thousand ?”
“Sixteen thousands “
“Wow!..you are smarter than my dad, He answered after few seconds but
you answered right away”.

3.“where is God?”
“Every where”
“Oh!..He must be so...small to be everywhere” 이순희(간호 70)

지난 8월 6일(토)에 남가주 동창회가 주관
한 Hollywood Bowl 음악회에 우리 손녀와
손녀친구를 데리고 가서 그날 일어난 일화
입니다.

공대로 분담받은 Hollywood Bowl 에 아들
부부와 같이 가려고 표 4장을 예약했는데 가
기 바로 전날 며느리가 아파서 6th Grade인
손녀와 동갑인 손녀친구를 Pick Up해서 데
리고 갔다. 오래만에 만나서인지 둘이서 깔
깔대며 XM Radio에서 흘러나오는 요즘 음
악을 같이 부르면서 가는 동안 뒷자석이 쑸
시끄러웠다.

한편 우리는 그날 공연이 차이코프스키 특
집으로 Classic음악이라 아이들이 지루해
하며 떠들어서 주위의 동문들에게 폐가 될
까 신경이 쓰였다. 아니나 다를까? 전반 연
주가 끝나기도 전에 손녀 친구가 ‘It’s bor-
ing’ 하면서 몸을 뒤틀고 손녀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두 아이가 끝날 때
쯤 나오는 Trojan Marching Band와 함께
하는 Firework도 안 보고 그만 가고싶다고
하지나 않을가 하고 손녀의 눈치를 살폈다.

아! 그러나 우리 손녀가 말소리도 없이
친구의 손을 잡고 지휘자의 손놀림을 주
위에는 별로 안 보이게 따라하며 자기친
구의 흥을 돋구며 조금이라도 친구의 지
루함을 달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가? 친구는 우리손녀의 의중을 알았는지
끝까지 조용히 주위를 방해하지 않고 마
지막에 나오는 Spectacle한 Firework을
환성을 지르며 즐겼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새삼 우리 손녀가
어린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언제 저렇게 성
숙했나라고 생각하면서 헤어질 때 꼭 껴
안아 주었다. 한효동(공대 58)



아이들의 기도

아이들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수가 많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린이가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는가 보다.

지금은 다 자라 어른이 된 작은 아들이 어릴 적에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면 엄마가 기도를 해 주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애 엄마가 작은 아들을 재워놓고 나오더니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가 기도를 다 마치자 작은 아들이 “You always pray
‘주시고- 주시고-’ but never appreciate!” 하고 핀잔을 주
더라는 것이었다.
아들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기도할 때 늘 감사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자기 문제와 세속적인 욕심에 눈과 귀가
어두워져 목사님의 기도 말씀 중에서 축복기도는 잘 들려
“아멘” 하고 큰소리로 외치면서 감사하는 대목은 곧잘 놓치
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통사정하는 ‘민원기
도’는 장황하게 하면서 ‘감사기도’는 빼먹는 것이다. 그것이
더 중요한데... 이석호(공대 66)



아이들 이야기

딸 둘 낳은 후 아들을 낳은 우리 가정은 마치 세상을 얻
은 듯 기뻛고 친지들은 100점이라고 축하해 주었다. 그
런데 이 아들은 딸들이 안하던 짓을 골라 하고 다니는 것
이었다. 마치 방 벽이 화보나 되는 것처럼 색연필로 여기
저기 그림을 그리지 않나, 화장실
변기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머리카
락에 발라 보질 않나, 어느 여름날
저녁엔 동네 부인에게 들려서 집
에 오는 때도 있었다.

기저귀차고 흰색 탱크 탑을 입은
어린 두 살도 안된 아이가, 사물을
신기하게 관찰(?)하면서 한 여름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타박 타박
종종 걸음으로 세 블락을 걸었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슬아슬한
생각이 든다. 더 기발한 것은 달
콤한 어린이 비타민을 하루, 하나
씩 주곤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부엌 찬장 위에 놓은 캔디 비타민

한 통을 다 먹어버린 거였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나 했는
데 다행히도 핑크빛, 자주빛 오줌을 눈 후 괜찮았다.
이성숙(가정대 74)



더 좋아

김수영(사대 57)

아들보다 딸이 더 좋아
아기자기 조잘거려서 더 좋아

종일 같이 있어도
말동무가 되어 심심치 않아 더 좋아

아들은 꺾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멋이 없지만

딸은 눈 웃음을 살살치며
엄마 비위를 맞추는 애교가 있어
더 좋아

딸은 요리도 내 입맛에 맞게
새콤 달콤 매콤하게 잘도 만들어
더 좋아

아들은 밥상에 앉아도 먹기가 바쁘지만
딸은 맛있는 반찬 내 앞에 갖다주며
내 건강 챙길 줄 아니 딸이 더 좋아

딸은 시집을 가도 엄마 걱정
자주 안부 전화 주니 더 좋아

아들은 대를 이어가니
그저 든든한 맛에 딸보다 더욱 더 좋아

나는 아들도, 딸도 있어 참 좋아
더욱 더 더 좋아.

오래 전, 온 식구가 외출하였다가 밤 늦게 돌아오니,
적막과 어두움 속에서 집 정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 안으로 보이는 집안은 캄캄하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우리는 밖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떠들었다.
혹시라도 도둑이 집안에 남아있다면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나가달라는 바람으로.

얼마 후에도 아무런 인가척이 없자 우리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다.
아래층으로, 부엌으로, 윗층으로 불을 하나씩 켜가면서 살펴보았다.
긴장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5살, 7살짜리 두 아이들도
조심스레 집안을 살피고 있었다.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
아침에 서둘러 나가면서 문을 열어놓은채 나간 모양이었다.

안도의 숨을 쉬며 거실의 소파에 앉아있는데,
5 살된 딸아이가 이층에서 한 손은 등 뒤로 감추며
한발 한발 조심스레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틴, 이제 괜찮아.’
그 작은 얼굴에는 그제야 안심된 표정이 떠오르며 등 뒤로 감추었던 손을 보여주었다.
놀랍게도 그 고사리 손에는 부엌에서 언제 꺼냈는지 같이 들려있었다.

‘마미, 나쁜 사람들 잡으려고고..’

어른들은 두려워 떨 때 하룻 강아지는 용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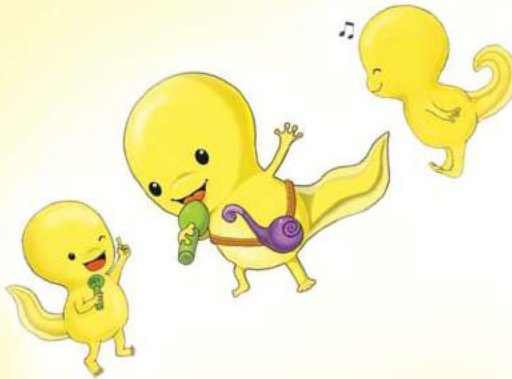


사진: 우리는 형제야 (3살/1살)
조동준(의대57)

울챙이 아들 키우기

큰 아들 카일이 1학년에 들어서
고부터 하루도 큰소리를 내지 않
고 지나가는 법이 없다. 우리 부
부가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는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 말씀
을 잘 듣지 않고 수업시간에 장
난을 치고 시끄럽게 굴었다는 메
모를 받는 날이면 아이는 내 등
살에 더욱 피곤해질 수 밖에 없
었다.

“도데체 누구를 닮아서 매일 그
렇게 말성이니?” “같은 얘기를
몇번이나 해야 하나?” “학교에
서 선생님 말씀을 왜 그리 안들
는 거니?”

그런데,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
을때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내가 출가를 한 후 몇번을 이
사하시게 된 어머니께서 이젠 집
만 되니 미국으로 가져가라며 오
래된 화일박스 하나를 주셨다.
그 속에는 내가 초중고교 시절에
받았던 성적표와 상장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1학
년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때
까지 매년 받았던 개근상장, 뭘
그렸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수없
는 미술대회 상장, 돌아보면 자
랑스럽고 마음 뿌듯하게 해주는
중고등학교 우등상장, 그리고 해
마다 받은 성적표 등등... 지난 시
간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한장
한장 들여다 보았다.

그러던 중 누렇게 색이 바랜 초
등학교 1학년때의 성적표가 눈
에 띄었다. “1975학년도 학교생
활의 모습”, 정확히 30년전 나의
모습이 담겨있는 성적표였다. 궁
금한 마음에 열자마자 눈에 들어
오는 글... “1학기 종합의견: 두
뇌가 명석하며 발표력이 왕성하
다”, “2학기 종합의견: 이해가 빠
르며 성적이 우수한 편이나 주위
가 좀 산만합니다”

주위가 산만하니? 내가 언
제? 나는 기억이 전혀 없는 일인
데? 하지만 맞은 편에 있던 행동
발달상황은 더 기가 막혔다.

생활습관 (자기의견을 바르게
말한다. 고운말을 쓰고 인사를
잘한다) - “나” 준법성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킨다. 차례를 잘 지
킨다) - “나” 정서안정 (침착하
고 서두르지 않는다, 공부하는
자세가 바르다) - “다”

30년전 가, 나, 다로 평가된 행
동발달상황을 통해 나타난 나의
옛모습은 현재 카일의 모습과 너
무도 닮아있었던 것이다. 개구리,
울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이야
기는 나를 두고 한 말이었다.

하긴 유치원 다닐 적에는 동네
아이들을 부추켜 버스를 타고 오
라 주신 돈으로 사탕을 사서 몰
고 놀면서 집으로 오는 바람에
난리가 난 일이 있었다 (이 일은
나도 기억이 난다). 또 1975년 3
월, 초등학교 입학 후 첫날에는
줄을 맞추어 운동장에서 교실로
들어오던 중, 연못위에 떠있던
죽은 봉어 한마리를 건져 징그럽
다 도망하는 여자애들을 쫓아 다
니며 놀렀다는 전설이 있다.

아뿔싸, 이제 보니 자기는 옆으
로 걸으면서 아이들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했었던 엄마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피식 웃
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행
동발달상황에 “나”, “다”를 거듭
했다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소리
를 높으신 적이 있었던가? 내가
바깥에 나가 노는 것을 막으셨던
적이 있었던가? 이제 보니 나는
소리 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아
래닌가? 일곱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어른처럼 성숙할 것을 기대하는,
자신도 하지 못했던 것을 요구하
는 비현실적인 엄마였던 것이다.

별난 아들을 어찌 소리 지르지
않고 키울가 고민을 하던 중, “
무엇이 내 아들을 그토록 힘들
게 하는가 (Raising Cain)”이라
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은 보
편적인 남자 아이들이 가지는 특
성과 함께 아들을 양육하는 나의
방법이 틀렸음을 적나라하게 보
여 주었다. 그 책을 읽고 카일의
선생님께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아이에게 시간별로 잘,
잘못한 것을 알려주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격려를 하는 방법
을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이후 나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으
나, 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아이
를 지지하고 도우려는 엄마가 되
었다. 그와 함께 카일의 수업태
도는 오히려 나아졌고, 소리높이
고 짜증낼 이유도 조금씩 줄어들
기 시작했다.

어느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
다. 금성에서 온 엄마가 화성에
서 온 아들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지만 금성식으
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기 보다
는, 성정이 다른 아들을 위해 힘
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
개가 끄덕여졌다. 이제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를 해주는 엄
마가 되어, 유별난 아들이 주눅
들지 않으며 조금씩 변화하길 바
란다. 30년 전, 그와 같은 나이에
그리도 별났던 이 엄마도 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했으니 말이다.

권준희(가정대 87)

지재원(사대 68)

한정민 (농대 87)

<아들아,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

한달 전 대학생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순간 ‘무슨 일 있나?’ 철이 들면 안부전화 하는 날도 오겠지만, 아직은 용돈이 떨어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가 오다보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지난 학기에도 중간고사 전에 서너번 전화해서 ‘공부가 너무 힘들다’며 한번씩 쏟아내곤 했기에 전화벨이 울리면 살짝 긴장이 된다. 그리고 다시 소식이 없어 연락하면 ‘잘 지내요’란 문자만 날리는 아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상치 않다. 그냥 힘들단 너스레가 아닌란 느낌이 온다. 두달 전쯤 꾸물거리다 여름 인턴십 기회를 놓쳐서 전화로 꾸짖는 중에 수화가 너머에서 울썩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너 우니?” 그러자 “엄마, 나 너무 힘들어”하며 흐느끼는 게 아닌가?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듬어 “괜찮니?”라고 안부를 묻는데 나도 와락 눈물이 났다. 초등학교 이후 아들이 우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I hate this school. 무슨 놈의 학교가 맨날 6-7시간씩, 그리고 주말에도 밤 먹고 공부만 해야 학점을 받아? 다른 애들은 다 천재 같아. 난 기다 치며 노래도 만들고 부르고 싶은데... 주말엔 아이들과 노는 자원봉사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직업 의식이란게 이런건가? 어느새 나는 상담사로 옷을 갈아 입고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있었다. “너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

순간 머리가 복잡해지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가끔 ‘조금만 더’를 외치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한 아이들의 비극적인 뉴스가 떠올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고생도 모르고 너무 나약하게 키워 그런가’란 자책과 ‘잘 버티라고 좀 세게 말해야 하나?’란 생각도 스친다. 아니면, 좀 쉬었다 가도 괜찮다고 말해줘야 하나? 마음이 혼란하고 두렵다.

한참 고민하고 기도한 후 나는 ‘그냥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떤 결정과 답을 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 설사 바닥에 떨어져도 업마로서 해줄 수 있는 지지대와 버팀목이 되어 ‘아들아, 좀 쉬었다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줄기로 했다. 그 후 2주 동안 2 - 3일에 한번씩 전화로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아이가 압박과 걱정으로부터 좀 풀렸을 때 몇가지 옵션을 보여주었다. Gap year를 하며 일하고 여행도 하면서 넓은 세상을 배우는 시간을 갖거나, 조금 쉬운 대학으로 옮겨서 공부 외에 하고 싶은 음악과 자원봉사 등 좀 여유있는 대학생활을 갖는 것, 혹은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방법도 소개하며 ‘꼭 학교를 4년에 마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자’란 스스로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 다른 관점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가 왔다. “엄마, 시간은 가네. 그 힘들던 시간도 지나갔네.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냥 여기서 4학년까지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동양엄마들처럼 말해주지 않아서 감사해요.”

아이도 나도 큰 테스트를 치른 느낌이다. 앞으로 많은 현실의 산들이 다가올텐데, 그 때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편이 되어 지지해주고, 때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날 용기의 말을 건네는 것 외에 부모면 내가 해줄 수 있는게 많지 않음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

위싱턴 가정상담소 소장, 편집위원

‘조금만 더’를 외치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택한 ...



‘아이가 다섯’라는 드라마가 화제속에 종영되었다. 티비 보는 것을 즐겼다면 미국에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을가 할 정도로 티비를 안보는 내가 도대체 나같은 여자가 또 있군, 하고 보기 시작한 한국드라마이다. 결론은 사별한 두 아이의 아빠와 이혼한 세 아이의 엄마가 재혼으로 다섯 명의 아이를 기르게 되는 드라마인데, 기가 막히는것은 아이 세 명의 엄마는 거의 죄인 수준이라 할까..?

아깝게 가버린 로빈 윌리엄스의 Mrs Doubtfire 의 인기있는 아이 셋 엄마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차이일까?

서울대 미주동문회에서 일하며 보니 아이가 다섯인 나같은 사람은 아직 없지만, 네 명이 있는 집은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아들만 네 명인 집, 딸만 네 명인 집, 아들, 딸 섞여 네 명인 집.. 혹시 내가 애 다섯임을 자랑(?)하고 나면 훌륭하게 자녀들을 기른 많은 동문들이 본인들의 자녀 양육 스토리를 후배들을 위하여 보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우리 집 아이들은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뭐하나 똑 부러지게 끝까지 하거나 하는 재주는 없지만 아이들 하나 하나가 재미있는 기억들을 엮마인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첫째는 항상 무엇인가를 꿈꿔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보는데, 다섯살 때 한 여름날 타운 수영장에서 내가 물병에 열려서 절반 정도 물로 채워간 병을 가만히 5분 정도 진지하게 들여다 보더니, 맘 여기에다 어떻게 열음을 넣었어요...? 하고 질문을 했다.

둘째는 세살때 쯤 spooky 한 uncle 이 가르쳐준 미

들 핑거를 사진 찍을 때마다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게 가운데 손가락이 제대로 되었는지 자신의 손가락만 보고 있는 진지한 얼굴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한동안 모든 사진에 찍혔다. 킨더가든 때에는 상으로 선생님의 트레저 박스에서 백악관으로 보내는 엽서를 가져다 본인 생각대로 911 직후였던 그때 ‘we have to win’ 이라고 써서 보내서 대통령으로부터 친필 편지를 답장받기도 했다.



아이가 다섯

셋째는 오빠 두 명의 딸이다. 연년생의 오빠들보다 뛰어난 사고로 셋이 말쑥을 피우면 항상 Plot 을 제공했던 딸은 우스개 소리로 내가 어떻게 이브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먹었는가 이해할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용감한 아이였고, brown egg 를 처음 보고 눈을 반짝이면서 미소를 짓더니, 며칠 후 병아리로 변하지 않은 털 목도리에 잘 싸여진 계란 두 알을 나에게 돌려 주었다.

넷째는 연년생 세 명을 위로하고 삼 년 터울로 태어난 딸이다. 한 살도 되기 전 걷기 시작해서 유모차와 하이체어에서 목표물이 보이면 몸을 어떻게 뒤틀어서라도 빠져 나오기에,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없었던 애기였던 네째는 다섯살이 되기 바로 전의 할로윈때 동네에서 사라져버린 기막힌 사건의 주인공이다. 온동네를 다 돌아보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하기 바로 직전 목욕탕 문을 열

어보니, 변기에 앉아 입에 한가득 초코렛을 물고 대답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얼굴로 아빠가 다 뺏기 전에 먹어야 한다고...

다섯째는 정말로 surprise, surprise 이다. 아들 둘 딸 둘 이후 태어난 막내는 정말 한 명 더 낳아볼까?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보게..할 정도로 우리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이제 중학생인 막내는 학교에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좋아하면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부와는 상관없는 행복한 아이다.

삶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커가는 아이들을 볼 때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을 추스리며 나의 인생은 늙어가고 있다. 아이들이 많은 것이 창피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중요했다. 일하는 엄마들이 라이드를 세워할 때 차에 자리도 없고, 또 그들이 쓰는 소비 수준에 맞출 수 없어서 애들이 일하는 엄마를 가진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줄기도 했다.

맥도널드 가서도 쿠폰 있거나 BOGO 인 것만 먹던 시절, garage sale 에서 뭐든지 사던 시절, early bird 는 무조건 쟁겨야 했던 시간들. 라면 한 박스도 금방 없어지고, 코스코에서 사다놓은 냉동 음식들을 가져 먹으라 했더니 공기로 채워서 부풀려 놓고, 열어보면 텅빈 아이스크림 통, 피자박스... 지금은 다 웃음만 짓게 하는 추억들이다.

이제 가을이 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집으로부터 독립해 남편의 철학과 가르침대로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세 명의 대학생을 둔 재벌집(?)이다. 진정한 코리아한 아메리칸인 우리집 다섯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허유선(가정대83) 편집위원

이선화 (미대 83)

물결 위 춤추는 빛을 그린 사람 미학에 전쟁을 선포한 인상파 화가 ‘모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 세상은 모네를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의 화가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

당시 전통적인 아카데미에서는 캔버스에 사물의 외형을 드로잉하고 그 사물이 가진 고유의 색(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고정된 선입관)을 뚜렷이 칠하고 명암을 통해 질감을 나타내는 방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였다.

만일 획 지나가는 고양이를 그린다면, 고전주의 화가들은 지나가는 고양이도 멈추어 선 것처럼 정확하게 뚜렷하게 그려낼을 때였다. 하지만 획 지나가는 고양이는 우리 눈에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한 점으로만 보일 뿐이다.

하지만 모네는 그것을 보았던 것이다. 순간의 인상을 그렸다. 속도감을 그렸다. 그것은 한 점으로 그리는 거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양이가 아니고 ‘눈에 포착된 순간’의 고양이를 그리는 거였다.

정해진 틀이 아닌 그것. 자연스러움, 그리고 싶은 대로,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었다.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의 개념을 깨버린 것이었다!

그것을 찾고 난 후 그에게는 평생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빛나는 태양과 공기의 질감을 느끼며 야외에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며 그는 미래를 보았다. ‘현대’라는 시대를 보았다. 현대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네의 시각적 표현이었다. 그때가 19세기 초반이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실내에서 나와 처음으로 빛이 있는 야외에서 그렸다. 나뭇잎 사이로 내려온 빛, 하늘에 펼쳐진 잎들, 그림자속에 있는 색감들을 서서 직접 보면서 그렸다.

따사로운 빛의 움직임을 담아낸 모네의 풍경화

반사되는 빛에 따라 아침에 본 성당과 저녁에 본 성당의 색이 다르고,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성당이 다르다. 모네는 이제까지 알고 있던 관습을 걷어내고 인간의 시지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삼아 순간적으로 망막에 포착된 다양한 스펙트럼의 색채를 캔버스에 재빠르게 옮기고 싶어했다. 이같이 인상주의 미학을 선포했던 화가가 클로드 모네였다.

실제로 ‘인상주의 Impressionism’ 라는 용어도 1874년 제 1회 인상주의 전시회에서 모네가 그린 〈일출〉을 본 비평가들이 빈정거리며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바닷가에 떠 있는 배, 멀리 보이는 항구의 모습들 어떤 것 하나 그 형체가 없이, 그저 붉은 하늘과 물에 비친 빛의 잔영들의 ‘인상’을 빠른 붓놀림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당시 비평가들은 미완성이라느니, 전시회 벽지보다도 못하다고 비난하였다. 시력이 나쁘다고도 빈정거렸고 누군가는 인상적이지 않다고 평했다. ‘인상주의’ 용어는 모욕에서 비롯된 이름이었다. 하지만 모네는 미묘하게 변하는 빛에 매료되어 물 위의 빛, 구름과 하늘을 그렸다. 수십장씩 바로 그 날 그 장소에서 생애 처음으로 본 그대로 세상을 담아냈고 바로 그게 인상주의였다. 당시의 화가들이 ‘대상’을 그렸다면 모네는 현대인의 눈에 비친 ‘인상’을 그렸다.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렸다. 기억으로 그리는 게 아니었다.

어떤 날은 바다가 초록빛이었고 어떤 날은 푸른 빛이었다. 모네는 또한 물의 화가로 지베르니로 옮기면서 물결의 일렁임에 따라 변하는 빛의 굴절을 표현하였다.

1900년 이미 살아서 전설이 된 모네는 생을

그것을 찾고 난 후 그에게는 평생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빛나는 태양과 공기의 질감을 느끼며 야외에서 자연을 그리기 시작하며 그는 미래를 보았다. ‘현대’라는 시대를 보았다. 현대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 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네의 시각적 표현이었다. 그때가 19세기 초반이었다.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 실내에서 나와 처음으로 빛이 있는 야외에서 그렸다. 나뭇잎 사이로 내려온 빛, 하늘에 펼쳐진 잎들, 그림자속에 있는 색감들을 서서 직접 보면서 그렸다.

따사로운 빛의 움직임을 담아낸 모네의 풍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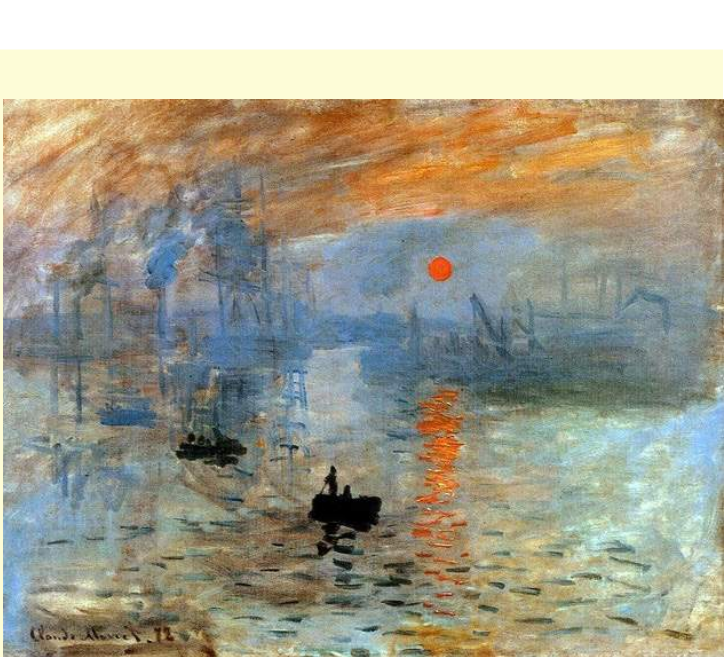


<루앙성당 아침, 한낮, 흐린날> 1894 모네는 성당의 제 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시각각 달라지는 빛을 좇아 성당을 여러 번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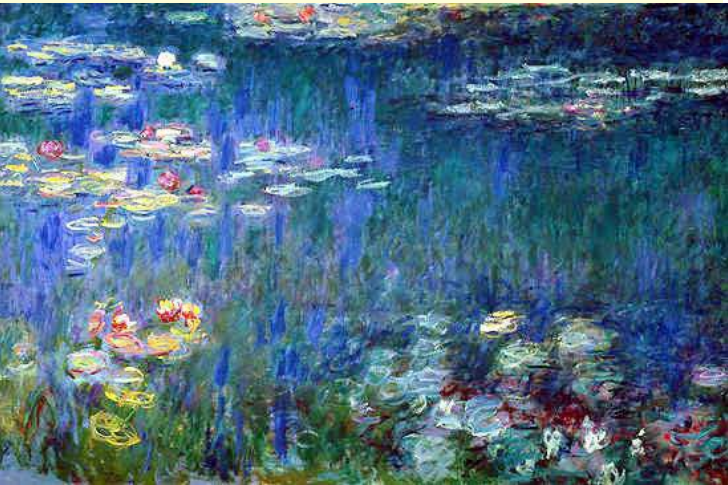
마감할 때까지 나라에서 주문한 거대한 수련 연작을 제작하였고 말년에 시력을 잃고 그린 대형화면의 리듬감있는 붓의 흔적과 당당한 색채들은 대상을 떠나 그 자체로 아름다운 색채추상의 진면모를 보여주었다.

모네는 생명력과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파란 사각형과 핑크빛 타원형, 물결 위에서 춤추는 빛, 살아 숨쉬는 삶이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그걸 그린 거였다. 모네는 그리고 싶은대로 그리고, 미래를 보았던 거였다.

그리고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의 그림들과 그의 정열 그리고 활나의 순간과 삶의 인상이 남아있다.



<인상-일출> 1874 파리, 모네 미술관
배의 돛대와 빛으로 물드는 항구의 형상은 흐릿하게 그리고 나서 격렬히 불타는 태양의 상정을 찍었다. 팔리지 않는 작품 중 하나였지만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해질지 알고 계셨나요?



<수련> 1899-1917 모네는 수련을 즐겼고, 수련의 시각적상을 그렸다.



<수련 연못> 1889-1917 모네가 만년을 보낸 유명한 모네의 정원 지베르니, 버드나무 늘어진 물 위로 머리를 내민 줄기마다 연꽃이 매달려 있고 일식 다리가 걸린 연못이 펼쳐져 있다.

My Story & Your History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문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질문에 대한 글을 news@snuaa.org으로 보내주세요.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한만섭 (CA, 공대49)

1. 49년~54년 (항공공학) 57년 미네소타 대학원 입학 57년 미네소타 대학석사, 66년 서울대 박사. 57~66년 공대 전임강사-조교수 역임, 66~68년 NASA Ames 연구소에서 PostDoc과정, 이것이 이문동기, 68~93년 Boeing 항공사에서 Aerodynamics Engineer로 여객기 설계 활동 등등. 93년 Boeing사 은퇴 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사의 항공우주연구소 소장직 역임 (부사장), 98년 항공관련 업무에서 영구히 은퇴.

2. 항공공학분야엔 선행도 없고 실험시설도 없던 시절 비행기 설계기술을 공부하겠다고 공대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진급하니 곧 6.25가 터졌다. 전란 속에서 자습으로 학사증을 받았고, 3년 후에 미네소타대학 항공공학 석사증을 받았으니 이게 끝같은 이야기다. 게다가 귀국하자마자 공대 전임강사에 임명되어 항공공학 과에 미국식 커리큘럼과 실험시설인 큰 풍동을 건설하였다. 풍동 시동식에는 문교부장관대리(군인), 대학총장 기타 귀빈을 모시고 성대한 행사를 치렀다. 이 행사는 대한뉴스에 실려 영화관에서 널리 보도되었 다. 대한뉴스는 지금의 TV 9시뉴스에 해당한다. 이 행사는 5.16군사정변 중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황무지였던 항공공학분야에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는 역할을 했으니까, 세익 클로버 꽃말인 '행복'을 실감하면서 자축생활을 한다.

내전 세익 클로버 '꽃말'이 또 하나 있다. Boeing사에서 일했던 25년간이었다. 난 세상 사람이 즐겨 타는 비행기 설계를 했다. 특히 연료가 적게 드는 공기역학적 모양 (Aerodynamic configuration)을 설계했다. 여러분의 비행기 샅을 줄이는 일을 했답니다. 보잉 747, 767, 777 여객기를 타고 여행할 때 뺄을 내다보며 여기 저기 내가 손질한 데를 보며, 세익 클로버의 '꽃말'을 연상하며 흐뭇해 합니다.

난 평범한 일을 성취한 데서 행복감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내 직업에서 일단 은퇴한 후로는 내 직업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즐기려 합니다. 내 직업의 권위자가 되려고 계속 노력해 봤자 이미 후배들이 추월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내 인생 철학이기도 합니다.

니다. 난 A- 인생을 위해 늘 uptight하게 사는 것보다 B+ 인생이지만 느긋하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3. 내가 한국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평범한 교수생활에서 은퇴한 후 미국보다 덜 자유스러운 사회 환경에서 살고 있을 것 같네요. 전(前) 서울대 교수였다는 '굴레' 속에서 살고 있을 게지요.

Boeing사 은퇴 후 한국의 한 회사에서 항공우주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일이다. 그 당시 한중간에 소형젯(Jet) 여객기를 개발하기로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이 일을 돕기 위해 한국에 갔다. 1~2년 끝된 양국간의 협상은 결렬되어 나는 나의 엔지니어링 재능을 활용할 기회도 없이, 때 마침 IMF의 난리를 맞게 되니, 한국 정부의 돈만 축내고 미국에 돌아오게 됐다. 내 평생 3 가지 직장생활 중 이 때가 가장 불편했던 시절이었는가 봅니다.

5. 내 나이 86세에 일주에 세번 걸어서 18홀 골프 라운딩을 하고, 주말엔 서울대동창 산행동호인들과 2 시간 4마일 산길을 오르내린다. 아직 Medicare Plan A, B, D의 혜택을 안 받고, 특별한 medication 도 없이 지낸다. 누가 건강관리 비법을 물으면, "난 그저 '내일 클로버의 상징인 행운'아(兒)일 뿐이지요." 라고만 말한다. 내 평생 몸에 좋다는 보약이니 무슨 탕이니 하는 것을 먹은 적도 없고, 그런 것 믿지 않고 살고 살아왔다. 그저 아내가 해주는 밤(백미)과 보통 먹은 반찬으로 영양 섭취를 했을 뿐이다.

난 술담배 안했고, 기(氣), 영(靈), 혼(魂) 등 두뇌활동 에너지 소모를 극소화했다. 이런 것이 나의 건강을 지켜준 비법인지 모른다. 난 부모로부터 좋은 Gene을 받았기에 이때 것 건강할 줄 안다. 모든 사람들이 몸매 내장된 Gene clock에 의해 사는 걸로 안다.

6. 내가 서울대 입학했을 때 미래의 iPhone 이란 것 상상도 못 했다. 내가 다시 서울대 공대생이 된다면 재빠른 기계문명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공부에 열중할 것이다. 그리고 인생 설계는 6, 70세까지 창조적으로 일해 많은 수확(收穫)을 해 놓고, 은퇴 후에 그 수확을 즐기는 것이다.

7. 편집위원은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내용과 편집이 충실해 졌다.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적 논쟁이나 논쟁에 개입하지 말기 바란다.

박영철 (MA, 농대 64)

1. 68년 미네소타 대학에 대학원생으로 유학했다. 유전학과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암 연구소에서 Section Chief 로 유방암을 연구하였다. Warner-Lambert/Parke-Davis Pharmaceutical Research Manager 로 일하면서 많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였는데 Pentostatin과 Lopid는 아직도 항암제와 lipid regulator로 사용되고 있다. Harvard University research laboratory가 모체인 Genetics Institute 에서 Associate Director 로 일하면서 유전자를 조작하여 개발한 약은 혈우병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고있다. 새로운 약들을 개발과정에서 생명의 신비함과 생명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Pfizer/Wyeth Pharmaceutical Research Center 에서 Director로 많은 새로운 약들을 개발하였다. 특별히 유방암과 신장암약을 개발하는 동안 우리 몸에 저장되어있는 genetic information의 복잡함과 이를 설명하는 과학적 지식의 불충분함을 보고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보았다.

2. 어릴적부터 하나님과 나를 과학적 논리적 방법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많은 학자들이 DNA가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듯이 나는 유전자를 이해하면 하나님과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전학을 공부했고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chaos 현상 속에서 질서를 보기 위하여 통계학을 공부했다. 요즈음은 한국인이 어떤 경로로 언제 한국 땅에 들어 왔는가를 DNA 이동과 분포를 통하여 찾아내고 역사, 유물, 고적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하며 공부하고 있다. 이 연구가 좀더 진행되면 9천년 이상의 과학적 기록을 가진 한국고대사가 다시 쓰여지게 될 것 같다.

3. 미국에 도착하여 처음 본 미네소타에서 시작되는 미시시피강과 주위에 아름답게 물들은 단풍나무들을 보며 즐거워하며 미국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던 기억. 한시간 강의를 듣기위하여 100 페이지 정도의 책과 20여개의 논문을 읽었던 효율적 교육제도. 거의 백인으로 구성된 연구소에서 한국인인 나를 그들의 Head/Leader로 모시는 포용적인 사회.

4. 한국역사 드라마를 즐겨보고있다. 한국역사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다. 요즈음은 환단고기 안경전 역주본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 우리역사가 단군조선으로부터 4200년가량이라고 배웠는데 단군조선 이전에 한국과 배달국 약 5000년이 더 있고 한국 고적물에 자주 나오며 중국 사람들이 시조라고 만드는 치우천황이 배달국의 14대 천황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니.

5. 2015년 싱가포르에 있는 신체나이를 측정하는 계기에서 나의 physical/metabolic age가 30년 젊게 나와 왜 그런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첫째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다. 항상 아름다움을 보면서 즐겁고 웃으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둘째는 음식인 것 같다. 아침과 점심은 생식으로 먹고 채소, 과일, 견과류를 많이 먹고 red meat을 피하고 생선과 닭고기를 먹는다. 매일 사과 하나와 사과식초를 먹는다. 셋째는 운동인 것 같다. 매일 한시간 이상 운동하려고 노력한다.

6. 대학시절부터 세계여행을 하고 싶었다. 직장관계로 London, Paris, Berlin, Bonn, Stockholm, Santiago 등 세계의 대도시들은 수없이 방문하였다. 몇년전에 은퇴하고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 뜨거운 물이 땅속에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육지에 접한 바다가 온천이고 빙하와 여름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Iceland에서 보면서 몇 백만년 전의 세계를 보는 기분이었다.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불고슬레가 되기를 원하고 해인사 팔만대장경처럼 나무에 글을 만들어 종이에 찍어서 책을 만들어 사용하고 사람이 죽으면 산에다 버려 새(Vulture)의 밥이 되게 하는 티베트를 여행하면서 고려시대의 한국을 보는 것 같았다. 두달 전에 페루와 볼리비아를 3주간 여행할 때 갈대와 비슷한 식물을 주식으로 삼고 같은 식물로 집을 짓는 티티타카호수 위에 떠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았다. 세계의 거의 모든 곳을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의 실질 나이가 40대초반(하하하)이라고 하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름답고 다양한 세계를 보면서 체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다.

7. 다양하고 질이 좋고 훌륭한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많은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Web Address 홍보에 힘써 주시면 좋겠다.

269호 | 2016년 9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1

New Books

[신간 소개]

영혼의 숨결 기도

강창욱 (의대 55, 사진) 동문이 스티븐 마이어호프(D. Steven Meyerhoff) 목사의 목상집 번역서 <영혼의 숨결 기도>를 펴냈다.

<영혼의 숨결 기도>는 지난 2007년 출간된 스티븐 마이어호프의 <기도에 대하여>를 개정 및 보강한 증보판으로, 크리스천들의 기도생활에 대한 세심한 조언을 담고 있다.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쯤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봤을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기도의 본질 △기도의 목적 △기도 제목 △기도 응답 등에 대해 다루며 크리스천들이 한번쯤은 가져봤을 기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시한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바로 이해하고 기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번역자인 정신과 전문의 강창욱 박사는 “개정 증보판의 제목을 <영혼의 숨결, 기도>로 바꾼 이유는 주님과 교감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생명의 숨결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

이태상(문리대 55, 사진)동문이 최근 세 에세이집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자연과 인문 출판)’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서 ‘어레인보우(무지개를 탄 사람)’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그냥 안아주기’ 어떤 게 후회 없는 삶인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등 총 33 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이 동문은 “가슴은 소유욕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제로 책을 펴냈다. 삶이라는 무게에 눌려 지치고 힘을 때나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사랑은 한줄기 빛 같은 지혜를 알려준다는 것. 사랑이라는 값진 삶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 깨달음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동문은 “10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딸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짧막한 동화로 남기기로 결심했다”고 어레인보우 시리즈를 쓰기 시작한 동기를 밝혔다.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

이태상(문리대 55, 사진)동문이 최근 세 에세이집 ‘가슴은 사랑으로 채워라(자연과 인문 출판)’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저서 ‘어레인보우(무지개를 탄 사람)’의 다섯 번째 시리즈로 ‘그냥 안아주기’ 어떤 게 후회 없는 삶인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 등 총 33 편의 에세이가 실렸다.

이 동문은 “가슴은 소유욕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제로 책을 펴냈다. 삶이라는 무게에 눌려 지치고 힘을 때나 위기와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사랑은 한줄기 빛 같은 지혜를 알려준다는 것. 사랑이라는 값진 삶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 깨달음과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동문은 “10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후 딸들에게 남겨줄 유일한 유산으로 내가 살아온 삶을 짧막한 동화로 남기기로 결심했다”고 어레인보우 시리즈를 쓰기 시작한 동기를 밝혔다.

‘A Lone Pine Road: Atonement’

<책 소개>
One day in early July of 2016, in my mail box, I found a book sent by Dr. Soosup Lah whom I got to know many years ago through our SNU Medical website. He was then in New York area. He has retired to St. Augustine, FL. I am very grateful that he remembered me somehow. Inside of the package was a good size book by the name of “A Lone Pine Road: Atonement”. It was his autobiography!

Ah, “A Lone Pine Road”... It sounds so sentimental as if it was a part of our past. Isn't that what we walked along in a foreign country since we left our home long time ago?

It is a story of Dr. Lah, me, and all of us. In his biography, he describes himself from the very beginning by his family genealogy. Just like any Koreans, including me, would say, he dedicates the autobiography to his father who passed him an unceasing spirit of independent search in life, and to his mother for her sacrificing love, and to his wife for her patience and wisdom. I agree how truthful what he said are. I, as well as all of us, would not be what we are today without our parents and wives. From the beginning, his story made my eyes warm because his story is more or less our own stories in Korea and America.

From the prologue, the book starts like this...

As it were, human life is a process of weaving a beautiful fabric for each individual. I compare the anguish

<저자의말>

나의 일생은 나름대로의 특이한 (unique) 여정이었다. 자라난 가정환경, 일본 제국의 식민지 치하에서 겪어야했던 민족적 수난, 이어진 이른바 조국의 해방은 기이하게도 선량한 우리 민족에게 미증유의 수난의 근대사를 안겨주었으며, 지금 이날까지 하나인 백의민족이면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분할이 고정화되고 있음을 볼 때 가슴 아프다. 8.15가 있었기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이 사태는 결국 나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역사에 없었던 이민의 길에 나서게 하였다.

미국 시민이 되어 살아오면서 노년에 이르니 걸어온 수난의 여정을 글로 써서 남기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 왔기에 이제 만시지탄이 있으나 미천한 자서전을 써 내게 되었다.

영어로 쓴 이유는; 첫째, 영어권에 들게 된 우리 후손에게 못다한 가훈과 교훈을 이제 늦게라도 남기려는 것이고, 둘째로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관하여 무식하고 무관심했던 미국인들을 계몽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나는 1946 - 47년에 평양에서 의과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을 등지고 월남하여 1949 - 50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였고 이민 온 말없는 동창 동지들을 대변하는 뜻에서 이 글을 내 놓는다.

and torments of life to colorful threads, Without travail, the thread would be without sparkle. In life's journey, each individual paces through a unique path, intermingled with pleasure and anguish. I termed my path in life as a lone pine road because it seemed that in most of my life's journey, I treaded through them without company. Nevertheless, I never felt lonesome, and I braved innumerable hindrances...

I am not going to describe the rest of the contents. It was so well written. If some of us are to write autobiographies, this book shows the way to go. I assure Dr. Lah will show you how to publish it if you are ready for it.

김성수 (의대59, 서울의대 동창회 web-site 운영자)

해서”라며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기도하고 목상을 하며 주님과 더욱 가깝게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진지한 기도생활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내면적 요소를 주제별로 간단하고 짧게 짚어 주어 쉽게 기도를 이해하고, 쉽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밝혔다.

최근 춘원 이광수의 단편소설 모음집 ‘The Best Short Stories of Yi Kwang-Su (본보 6월호)’을 출간한 강 박사는 모교 의과대학 졸업 후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과 펠로우십을 수료했으며 볼티모어 소재 성 아그네스 병원 정신과 과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영문 소설집 ‘The Last Journey of Jack Lewis’(책 루이스의 마지막 여정)’을 펴냈으며 현재 연방정부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 “책을 통해 살아온 인생 80년동안 직접 느끼고 깨달은 바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태상 동문은 모교 종교학과를 나와 런던대에서 철학과 법학을 공부했으며 합동통신사 해외부 기자를 거쳐 출판사 ‘Prentice-Hall’의 한국, 영국 대표를 역임했다.

현재 뉴욕주 법원행정처 별정직 공무원 법적통역관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코스모스 칸타타’ ‘무지코’ 등과 역서 ‘예언자’ ‘뒤바뀐 몸과 머리’ 등이 있다.

<미주중앙일보>

나수섭 (의대 49)

미국 시민이 되어 살아오면서 노년에 이르니 걸어온 수난의 여정을 글로 써서 남기고 싶은 마음을 안고 살아 왔기에 이제 만시지탄이 있으나 미천한 자서전을 써 내게 되었다.

영어로 쓴 이유는; 첫째, 영어권에 들게 된 우리 후손에게 못다한 가훈과 교훈을 이제 늦게라도 남기려는 것이고, 둘째로 대한민국의 근대사에 관하여 무식하고 무관심했던 미국인들을 계몽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나는 1946 - 47년에 평양에서 의과대학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을 등지고 월남하여 1949 - 50년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였고 이민 온 말없는 동창 동지들을 대변하는 뜻에서 이 글을 내 놓는다.

hindrances...

I am not going to describe the rest of the contents. It was so well written. If some of us are to write autobiographies, this book shows the way to go. I assure Dr. Lah will show you how to publish it if you are ready for it.

[여행]

장수마을 카오르의 비밀



홍지영 (인문대 89)

10여 년 전 파리 특파원 시절, 프랑스 중남부 카오르(Cahors) 지방에 간 적이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스코 동굴 벽화(사진)를 구경하고 차를 좀 더 남쪽으로 달려 내려간 길이었다.

프랑스 여행의 묘미는 뭐니뭐니해도 식도락. 가는 곳마다 그 지방 특산물로 만들어진 요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다. 카오르는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캐비어(cavier), 푸아그라(foie gras), 송로버섯(truffe) 가운데 두 가지(푸아그라와 송로버섯)가 특산물인 곳이니 안 들을 수가 없었다.

식당에서 가장 보편적인 요리도 이 두 가지와 관련이 많았다. 식사 전에 가장 보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샐러드지만 이 곳 샐러드에는 독특한 것이 들어간다. 새의 모래주머니(gesier), 흔히 똥집이라고 말하는 그것인데 여기서 거위 똥집이나 오리 똥집을 말한다고 한다. 푸아그라가 유명한 곳이니 거위나 오

리도 많이 키웠다. 오리고기는 이 곳 포도주와 곁들여 먹는데, 색깔이 유난히 진해 ‘검은 포도주’라고 불렀다. 레드와인은 붉은 소고기와, 화이트 와인은 흰살 생선과 잘 어울리고, 닭고기보다는 색이 약간 거무튀튀한 오리고기는 이 검은 포도주랑 먹는 거란다.

이곳에서 많이 생산되는 포도품종 시라(shrah, shiraz(영)), 말베크(malbec), 메를로(merlot) 등이 주로 들어가 짙고 묵직한 맛이 났다. 푸아그라는 글자 그대로 지방간이라 요리를 하다보면 기름이 엄청 나온다. 이 기름진 푸아그라를 아주 달콤한 와인과 같이 먹는다. 화이트와인보다 노랑고 달콤한 이 와인은 뱅 존느(vin jaune, 황색 와인)라고 부른다. 이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서 풍미를 돋우기 위해 우리나라의 자연 송이만큼 비싼 송로버섯 가루를 살짝 뿌려 먹기도 한다. 이곳 식당 이야기를 한참 하는 이유는 카오르가 세계의 장수마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식도락을 즐기는 프랑스 사람들이 살아 찌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프렌치 패러독스(french paradox)라고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 사례가 바로 카오르가 아닐까 싶었다. 비밀은 바로 와인이라고 하는데 별로 믿음이 가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살펴본 프랑스인들의 식습관은 식도락을



즐기기 위해 조금씩 많은 종류를 먹는다. 그리고 엄청 수다를 떨며 천천히 먹는다. 육류만큼 채소도 많이 섭취한다. 프렌치 패러독스의 비밀이 와인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와인 마케팅 기법이 아닐까? 어쨌든 장수촌이라는 명성 덕분에 프랑스의 이 시골 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꽤 많았다. <SBS 뉴미디어 에디터>



송은정 (인문대 89)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간에 있는 벨라루스는 역사상 많은 침공을 당하였고, 수도인 민스크가 11번에 걸쳐 초토화가 되었던 슬픈 역사를 지닌 나라다. 2차 대전을 통해 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였고, 전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총인구가 9백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쟁 전 1천백만 명에 달했던 인구에 못 미치니 그들의 고달팠던 역사를 짐작케 한다.

지난 2주간 민스크에 머물러 일하는 동안 주말에 미술관에 갔다. 그저 아트 갤러리라고 표시된 지도를 보고 찾아가, 미술관을 다 돌아보고 나서야 그곳이 그들에게 국민 영웅으로 여겨지는 ‘미하일 사비트스키’라는 화가의 미술관임을 알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내 뒤로 두 여인과 한 젊은 남자가 들어섰고 그들이 내가 하는 영어를 알아듣고 통역을 해 주었다. 전시실에 들어서며 그중 한 여인이 자신은 ‘마리아’이고 딸 ‘스테이시’와 조카 ‘일리아드’와 함께 왔다고 소개를 하고, 친절하게도 마리아와 스테이시는 그곳 큐레이터와 나를 따라다니며 큐레이터가 설명하는 것들을 영어로 통역하여 주었다.

그들의 통역을 통해, ‘미하일 사비트스키’는 2차 대전 중 1942년에서 전쟁이 끝나는 45년까지 나치 캠프에 수용되었었고, 그때의 경험 -인간의 잔혹함과 광기-를 많은 화폭에 담아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자신의 아이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죽고 고통을 당한 그 경험을 통해 또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는 그러한 고통의 기록들을 남김으로써 인류와 후세에 이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꿈꾸었다고 한다. 그의 작품들을 돌아보며, ‘일제시대의 정신대 및 아픈 우리의 역사를 예술작품으로 남겨 후세와 전 인류에 잊혀지지 않도록 남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죄수 No 32815>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의 자화상



<여름극장> 여름극장은 시체들을 태우기 위한 구덩이를 일컫는 나치의 용어였다고 한다. 서 있는 죄수는 나치의 앞장이가 되어서 시체들을 태우는 일을 맡았는데 너무나 많은 시체들을 처리한 후 미쳤다고 한다.



<욥 Job>

던 중, 사고로 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신체의 부분들을 잃은 많은 이들에 대한 글을 읽고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방암으로 두 가슴을 절단한 21세의 여인을 만나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레멘은 그 청년의 이야기 끝에 “고통은 삶을 때로는 분노로, 혹은 비난과 자기연민으로 몰고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삶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안겨 준다”고 했다.

그녀의 이 말처럼 미하일 사비트스키의 그림들은 참혹한 광경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 10여 년 동안 그의 신앙과 성서에 근거한 그림들을 그렸고, 그의 전시관 한쪽은 벨라루스의 어머니와 아이들, 추수, 곡식 등등의 평온한 일상과 민족의 흥겨움을 그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에 놓일 때, 예수님이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질 때, 미하일 사비트스키의 그림들을 바라보며 인간은 그러한 순간들도 견디어낼 수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전히 삶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며, 크고 작은 고통을 견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

[여행]

산수(傘壽)에 돌아본다

(의과대학 15회 동창회 졸업 55주년 기념행사)



강창욱 (의대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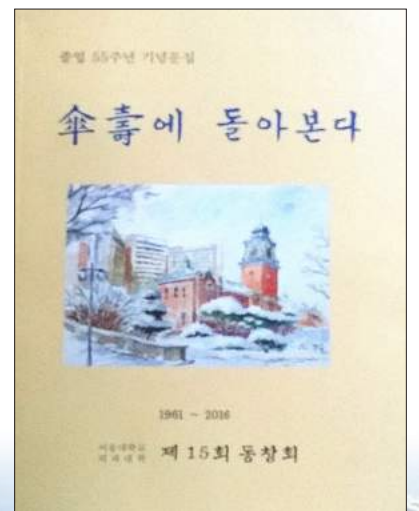
5년 전에 50주년 기념행사 금축제(金祝祭)를 마치면서 55주년 기념모임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2월 초순에 우리 계획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한국에서 6명 미국에서 11명이 참석하겠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 것도 통지를 보낸 지 24시간도 안 되는 다음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9명 미국에서 19명이 참가의도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중 3명은 처음에 참가 불가능 하다고 했었는데 뜻을 바꿔 참가하겠다고 결정을 전복하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호응에 기쁜 환호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7월 23일 미국 각지에서 또 한국에서 집결한 참석자들이 예정대로 캐나다 밴쿠버에 정박한 프린세스 코럴(Princess Coral, 사진)에 탑승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모두 한자리에서 오레만의 첫 해후를 기쁨 속에서 가졌습니다. 서로 반가워 등을 쓰다듬고 포옹을 하며 반가운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두가 건강하게 보였고 다들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듯 흐뭇한 옛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나 노인 같지 않게 보였으면 과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고, 저녁 식사는 선상의 정장을 하고 좋은 음식에 와인들을 곁들여 축배를 하며 우리들의 즐거운 선상제회의 즐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Heart and Mind”란 이름을 한 모임의 방을 얻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교가도 부르고, 우리 동기동창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박인희의 “모닥불”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다. 조찬과 점심은 Lido에서 삼삼오오 옹기종기 모여 못다한 얘기를 즐겨 하고, 감관을 곁으면서도 못다한 얘기를 하며 돌고 돌면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다들 건강애기

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리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세 항구 캐치캔, 주노, 스카그웨이 에 정박하여 버스를 타고 관광을 하였지만 참으로 좋았고 알래스카에 왔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선이 Glacier Bay National Park와 College Fjord를 선상에서 구경하면서 그림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빙하들을 보고 눈에 덮인 푸른 산, 구름이 살짝 가린 빙하가 곳곳에 덮인 그 산들, 여기사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빙산이 깎여 수면으로 넘어져 침몰하며 올려오는 광음은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 자연의 장관이었습니다. 와- 하는 환호가 절로 나왔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College Fjord라는 이름이 거기에 있는 여러 빙하의 이름을 존스홉킨스, 예일이나 하버드같은 미국의 유명 대학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앵커리지에서 일부는 귀가를 하고 일부는 육로로 디날리구림공원으로 열차를 이용해 관광을 계속하였습니다. 알래스카를 만끽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은 모두 호텔 주점에 모여 맥주와 함께 정담을 나누었고 다시 만날 것인지 기약도 없이 그 다음날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번 모임에 참가하지 못한 이재홍 동기가 한국에서 인사말을 보내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옛 성현의 말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 보다 못하며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있습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미주에서는 최공창 동기가 아래와 같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대학동창이라는 천부의 끈끈한 인연으로 시작했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들의 숙명이 아니겠소. 인생 8학년 초반에 들어선 우리친구들, ‘과거는 영원히 정지 되어 있고, 현재는 쏜살 같이 지나가며, 미래는 서서히 다가온다’ 는 어느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모교를 떠난 지 반세기가 넘었소. 우리인생의 해도 서쪽으로 훨씬 기울어진 것은 당연하오. 일출도 아름답지만 저녁 노을 또한 아름답다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노을을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오래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소. 친구들! 항상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번 모임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드시기를 기원하는 바이오. 여러분들이 선상에서 부르는 “모닥불” 노랫소리 은은히 들리는 구려. 모닥불 피워놓고 미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라.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으라. Bravo! 부탁컨데, 한번만 더 크게 불러주오, 그래서 젊은 시절의 추억과 우리의 우정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해주 구려.

석양을 말하면서 낭만적인 것이 우리 동기다운 심정인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감사’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감사하는 동창이라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회상하자면 우리가 의과대학 1년생 때 해부학을 끝내고 우리의 해부학 실습을 위해 시신을 제공하신 그 영혼들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해부학 교실 앞 정원에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습니다. 대학교정원에 영원히 남을 것입

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먼저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의 영혼에 절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인 정두현 동기는 추모의 시를 보내 왔습니다.

〈먼저 떠난 친구들을 그리며〉

졸업하고 쉬던 다섯해
젊은 열여덟에 우리는 만났네
희망에 넘쳐서 만났네
그 청순한 시절
아름답고 가난하고 의기에 불타던 시절.
그대를 먼저 갔어도 어찌 잊으리오.
우리는 기억 하네.
아직도 귀에 익은 심장의 박동.
먼나라 알래스카, 차고 신비한 하늘
여기 우리들 모두 모여
그대를 자리도 마련했으니
이리 오게, 가까이 오시게.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주시게
먼 곳 銀河水 넘어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별들의 이야기 들려주시게.

우리 동기동창이 좀 유별나다는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이 나이에 이렇게 많은 동기들이 즐겁고 반갑고 뜻 깊은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결코 당연히 생각하기보다 감사하게 여길 따름입니다.

우리 동기가 처음으로 동기동창회를 발족하면서 5년에 한번씩 기념 사진집 혹은 문집을 내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8 번째의 문집으로 “傘壽에 돌아본다”라는 300 쪽이 되는 아름답고 알찬 문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성숙한 문필집입니다. 이렇게 傘壽를 돌아보는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영화]

두개의 영화 ‘인천’을 보고나서



조하유 (문리대 61)

“인천상륙작전”은 워싱턴 근처 극장에서 보았는데, 우선 극장의 의자가 recliner라 다리를 쭉 뻗고 거의 누운 자세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영화도 재미있게 보았다. 71 년 전 여름에 한반도가 적화통일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글러스 맥아더 장군(5성)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시키지 못했더라면 오늘 내가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미국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천상륙이 없었더라면 이 영화를 “반공영화”라고 비하하는 한국의 좌익 영화평론가들은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쟁 중 죽었거나 김일성 공산독재 치하에서 직사하게 고생하다 일찍 병들어 죽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5000분의1이라는 성공확률을 무시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감행, 한반도 적화통일을 막아준 맥아더 장군의 은혜를 모르는 한국인은 공산주의자이거나 그들로부터 역사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들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위해 해준 세가지 역사적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그것은,
(1) 1945년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 한민족을 35년간의 일본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준것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조선을 해방시켰다고 학교에서 가르친다.)
(2) 일본의 항복을 겨우 1주일 앞두고 양제갈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급속히 한반도에 들어오는 소련군대를 38도선에서 정지하라고 요구하여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막아준 것
(3) 1950년 김일성이 일으킨 한국전쟁 초반, 대구와 부산만 남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인천에 상륙하여 전세를

역전시킴으로써 남한까지 적화되는 것을 막아준 것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2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게 잘 만들어졌다. 다만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인천앞바다 섬들에 들어가 2주동안 사전작업을 총 지휘한 미국 해군대위 유진 클라크와 한국인 연정(한국해군대위)와 계인주(한국육군대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일부 한국인 유격대원들만 부각시킨 것이 좀 아쉬웠다. 물론 영화는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재미가 더 중요하므로 충분히 이해는 간다. 좋은 영화이므로 모두들 꼭 보기를 권한다. 특히 좌경화한 교사들로부터 왜곡된 한국 근현대사를 배운 젊은이들은 반드시 봐야할 필수영화다. 뉴욕타임즈도 이 영화를 호평했다. 특히 리엄 니이슨이 “Inchon!”에서 맥아더 역을 한 로랜스 올리비에 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평했다.

1982년작 영화 “Inchon!”은 어떤가?
“인천상륙작전”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1982년 미국서 만든 “Inchon!”을 DVD로 보았다. 007 James Bond 영화 몇편을 만든 할리우드 명감독 테런스 영(Terence Young)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탐스타 로렌스 올리비에가 맥아더 장군 역을 맡았다. 그리고 육체파 여배우 제클린 비셋과 당시 꽤 유명한 벤 가자라가 주인공 부부로 나온다.

그리고 일본 최고 미남배우 미후네 도시로가 한국인으로 나온다. 영화 초반에 한국 배우 이낙훈이 잠시 나와 유창한 영어로 제클린 비셋과 대화하는 장면도 있고, 당시 한국 탐스타 남궁원도 나온다. 이런 호화 배역들과 명감독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흥행에 크게 실패했다. 4천6백만불을 들여 만든 이 영화는 겨우 520만불을 건졌다.

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작품 자체가 엉성해서가 아니라 통일교 교주 문선명 목사가 제작비 거의 전부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론가들이 영화평을 아주 나쁘게 썼기 때문이라고 본다. 당시 문목사는 미국에서 인기가 없었고 (잠시 감옥살이까지 했다) 그가 세운 통일교도 미국 기독교단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영화 자체는 그런대로 재미도 있고 또 한국전쟁의 참상을 비교적 잘 묘사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영화 제작에 거의 이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투 장면 연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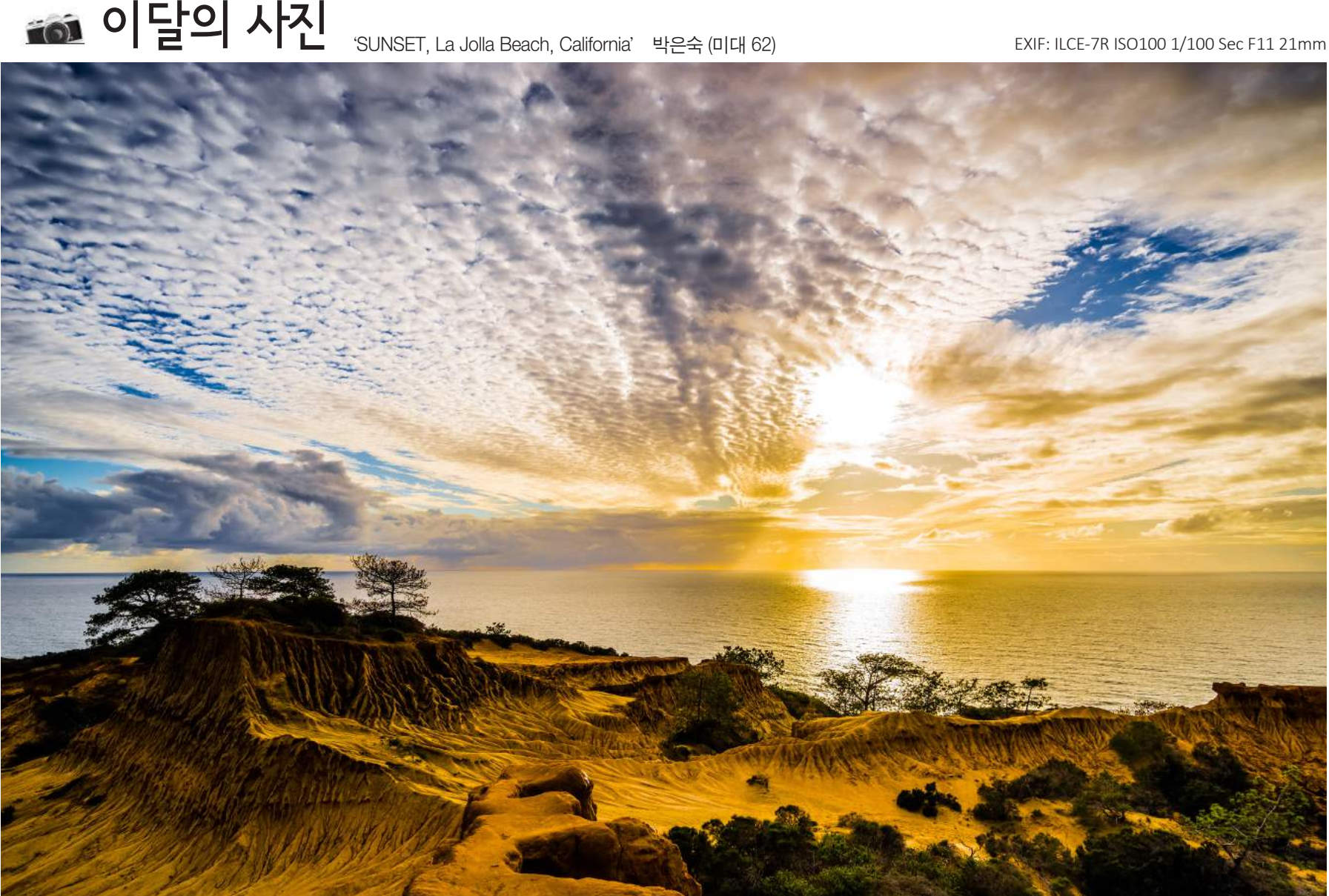


막대한 돈과 엑스트라들이 동원되었을 것이고 또 탐스타들에게 지급된 출연료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될 정도로 정성들어 만들었다. 이 영화는 Youtube에 들어가 “1982 film Inchon!”을 검색하면 1/14 부터 14/14까지 14개로 나눈 비디오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바둑이란 무엇인가?

현대 바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래서 기성(棋聖)이라 일컫는 오정원 선생은 “바둑은 조화(調和)”라고 역설했다. 극과 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타협과 어울림으로 한 수 한 수를 결단해 나간다. 때로는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어떤 경우에는 발이 느리더라도 두텁게, 그리고 상대편의 돌을 잡으려 하기 전에 자신의 삶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我生然後殺打). 미생(未生馬)의 설움을 맛 본 사람은 겸손의 도를 깨닫게 된다. 세력과 실리의 절충이 절묘하게 이루어질 때 완생(完生)의 기쁨도 느끼게 된다.

인공지능이 강세를 떨치고 있는 이 첨단 시대에도 인간의 생각과 수 읽기는 그 창조성에서 결코 기계가 추구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오랜 세월을 바둑을 베풀며 살아 왔다. 많은 기우(棋友)들을 만나고 정겨운 수담(手談)을 나누었다. 여행 중에는 언제나 바둑을 끼고 다녔다. 무료할 때 위안이 되고 어려울 때 견뎌내는 힘이 되기도 했다.



정중동(靜中動)의 순간, 샌디에고 ‘라호야’ 해안의 석양입니다.

독자의 광장

9월호를 읽은 독자들의 소감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news@snuaa.org

시가 있는 경제학’ 저서를 출판하신 플로리다 지부 윤기향 회장님이 다음의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책 소개는 출판사의 서평을 인용했는데 이미 인쇄를 시작한 상태라 수정이 불가피했고, 따라서 윤 회장님의 뜻을 동문님들께 전해 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시가 있는 경제학〉은 미국 FAU 경제학과 종신교수이자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한 윤기향 교수 (법대65, 현 플로리다 지부 회장)가 세상과 돈의 흐름을 꿰뚫는 아주 특별한 경제독법을 소개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시가 있는 경제학〉은 미국 FAU 경제학과 종신교수이자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한 윤기향 교수 (법대65, 현 플로리다 지부 회장)가 세상과 돈의 흐름을 꿰뚫는 아주 특별한 경제독법을 소개한다. 윤기향 교수는 American Economic Review,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Macroeconomic Dynamic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추가)

경제학자의 업적과 실력은 그가 발표한 학술지의 평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한 ‘탐 저널’을 소개하는 것이 “세계적 경제학자”라는 주관적 표현보다 좋을 듯 합니다. 부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윤기향 (법대 65)

편집 후기

남가주 IM 재단이 놀라운 ‘나눔’의 일을 해 내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는 저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편집을 마치고 나니, 편집후기 쓸 자리가 없네요. 많은 분들이 원고를 보내주셔서 가능한 한 신다보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몇몇 분의 소중한 글들이 실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다음호로 넘어갑니다. 독서의 가을, ‘나의 소중한 책 한권’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편집장

바둑파라 세월파라

최진석 (법대 64)

바둑을 두고 나면 복기(復棋)를 하고 기보(棋譜)를 남긴다. 한 판의 바둑에 정녕 무엇이 있는가?

초반과 중반 그리고 종반, 끝내기가 있다. 정석(定石)을 기초로 포석(布石)을 하며 판을 짜 나간다. 행마(行馬)를 하고 수(手)를 생각하고 죄를 내며 전투를 한다. 측(측)과 측머리, 패(覇)와 패감을 헤아리며 끝내기 요령까지 계산하고 착수(着手)를 한다. 부딪치고 밀어

내며 가두고 놓아 준다.

몰아치고 타협하며 잡고 잡힌다. 머리를 쥐어 뜯으며 고민하고 속이 타도록 궁리를 한다.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지만 한 수가 빠트려져 좌절하고 분노하며, 깊은 수 읽기로 난국(亂局)을 타개(打開)하여 역전(逆戰)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한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인간사 희노애락이 있고 오욕질정이 녹아 나듯이 대국자(對局者)의 자세와 성격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허세를 부리면 집이 적어지고 실리를 탐하면 세력이 떨어진다. 정직한 사람은 정수(正手)를 두고 음흉한 사람은 째수를 둔다.

작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小貧大夫) 큰 곳을 찾아 가는(捨小取大) 지혜가 필요하다. 바둑판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棋理)에 어긋난 수는 반드시 그만한 댓가를 치르며 무리수(無理數)가 된다. 바둑을 둘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다스리며 그래서 나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 반전무인(盤前無人)의 자세가 으뜸이다.

2차년도 회기: 동창회비 (2016. 7 ~ 2017. 6)

8월호부터 동창회비 2차년도 회기 명단이 기재됩니다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동창회비:	안병일(의대 63)	홍성선(약대 72)	민발식(의대 60)	함종금(간호 66)	구행서(공대 69)	송용재(의대 63)	조지아	플로리다	김현황(공대 64)
	양승문(공대 65)	홍수웅(의대 59)	민인기(의대 67)	허경열(의대 73)	김갑조(간호 51)	이계석(의대 67)	GA/AL/MS	FLORIDA	문두수(공대 73)
남가주	양운택(의대 58)	홍순택(사대 59)	박건이(공대 60)	허병렬(사범 42)	김갑중(의대 57)	이병진(공대 61)	강창석(의대 73)	김중권(의대 63)	민병곤(공대 65)
S,CA/NV	양창효(상대 54)		박경숙(간호 71)	허선행(의대 64)	김규호(의대 58)	이영웅(의대 56)	김순옥(의대 54)	문상규(의대 56)	박일우(의대 70)
강경수(법대 58)	양태준(상대 56)	북가주	박수안(의대 59)	허유선(가정 83)	김성일(공대 68)	장극기(의대 64)	김영서(상대 54)	박창익(농대 64)	유석홍(의대 66)
강정훈(미대 56)	염동해(농대 74)	SAN FRANCISCO	박순영(법대 56)	현영수(음대 61)	김연화(의대 68)	최인갑(공대 57)	김용건(문리 48)	송용덕(의대 57)	이건일(의대 62)
강중경(공대 48)	오양숙(간호 60)	공순화(사대 56)	박승화(간호 69)	홍선경(의대 58)	김용주(공대 69)		김용자(사대 60)	안창현(의대 55)	이원익(문리 73)
강홍제(상대 53)	우춘식(상대 61)	강명식(의대 61)	박영태(상대 63)		김일훈(의대 51)		손종수(의대 56)	전영자(미대 58)	이원익(의대 61)
고석규(치대 65)	위종민(공대 64)	강재호(상대 57)	박현성(의대 60)	뉴잉글랜드	김제서(의대 61)	워싱턴 DC	안승덕(상대 51)	한기봉(공대 52)	이정희(음대 55)
고영순(음대 59)	유석홍(상대 61)	공순화(사범 56)	방준재(의대 63)	MARY/NH/ME/VT	김연수(문리 60)	DC/MD/VA/WW	오경호(수의 60)	홍순호(수의 74)	이준호(상대 65)
고용규(의대 69)	유익영(문리 56)	권오형(사대 61)	배명애(간호 47)		고일석(보건 69)		유우영(의대 61)		임두규(미대 57)
공대용(공대 65)	유진형(상대)	김명환(문리 57)	배상규(약대 61)	뉴잉글랜드	김경석(공대 70)		임수암(공대 62)		정예현(상대 63)
김경수(치대 58)	윤경민(법대 55)	김병호(상대 57)	변건웅(공대 65)	MARY/NH/ME/VT	김문소(수의 61)		정량수(의대 60)		조동진(의대 59)
김재숙(간호 68)	이건일(의대 62)	서경애(음대 62)	김영춘(수의 64)		김선혁(의대 59)		정인태(의대 62)		조순자(치대 57)
김광은(음대 56)	이관(공대 55)	김윤범(의대 54)	서병선(음대 65)	뉴잉글랜드	김인수(사대 55)		문병훈(사대 47)		
김규현(법대 53)	이근웅(의대 61)	김정복(사범 55)	서상철(의대 50)	MARY/NH/ME/VT	김정환(공대 52)	워싱턴 DC	권오근(상대 58)		
김기태(의대 52)	이미정(의대 78)	김정희(음대 56)	서정웅(약대 63)		박영철(농대 64)		권철수(의대 68)		
김동산(법대 59)	이방기(농대 59)	김현환(공대 64)	선종철(의대 57)		배영섭(의대 54)		최나도(공대 62)		
김병연(공대 68)	이병준(상대 55)	남승채(공대 66)	성기호(약대 57)		이금하(문리 69)	워싱턴 DC	소진문(치대 58)		
김병완(공대 58)	이성숙(공대 56)	노문희(사대 59)	손갑수(약대 59)		이희규(공대 69)		송순영(문리 52)		
김석두(농대 58)	이소희(의대 61)	민병곤(공대 65)	손경택(농대 57)		장용복(공대 58)		송재현(의대 46)		
김석홍(법대 59)	이성환(의대 53)	박정룡(의대 53)	손완배(농대 70)		정선주(상대 58)		김용덕(의대 53)		
김성욱(간호 81)	이원익(문리 73)	박노면(사대 50)	송영순(사대 60)		조성호(공대 85)		김종호(약대 68)		
김성환(의대 65)	이장길(치대 63)	박서규(법대 56)	신달수(공대 59)		최선희(문리 69)		김해식(공대 59)		
김수영(사범 57)	이재권(법대 56)	박원준(공대 53)	안용희(사대 49)				김영기(공대 73)		
김순자(치대 57)	이재현(상대 58)	안재현(상대 62)	안재현(상대 62)	달라스	이승자(사대 60)		김영덕(의대 53)		
김영(수의 63)	이정근(사대 60)	오명주(간호 77)	양명자(사대 63)	LA/DALLAS	이승훈(공대 66)		박인영(의대 69)		
김영덕(법대 58)	이정화(공대 52)	온기철(의대 65)	양문석(상대 54)		이시영(상대 46)		박일영(문리 59)		
김용재(의대 60)	이정희(음대 55)	원미랑(미대 65)	우관혜(음대 63)		이영철(공대 60)		박홍우(문리 61)		
김재철(치대 62)	이종보(간대 69)	우대식(미대 60)	유 황(농대 56)		이정일(농대 57)		서기봉(상대 55)		
김준일(공대 62)	이준호(상대 65)	이관모(공대 55)	우상영(상대 55)		이태영(공대 62)		서윤석(의대 62)		
김창무(음대 53)	이중희(공대 53)	이창우(문리 72)	유영호(의대 52)		임근식(문리 56)		서휘열(의대 55)		
김태윤(법대 53)	이재진(문리 55)	이현숙(사대 62)	육순재(의대 63)		임아섭(미대 54)		석균범(문리 61)		
김택수(의대 57)	이정(농대 61)	임정란(음대 70)	윤선원(의대 50)		장세곤(의대 57)		안선미(농대 65)		
김홍목(문리 66)	이정광(상대 61)	정진수(공대 56)	윤영섭(의대 57)		장시경(약대 58)		안승덕(의대 53)		
김희자(간호 64)	임동규(미대 57)	최경선(농대 65)	윤인숙(간호 63)	룩키마운틴	장수영(공대 60)		안승덕(의대 53)		
김희재(사대 63)	임동호(약대 55)	황동하(의대 65)	윤정욱(약대 50)	MT/CO/WY/NM	장 홍일(공대 60)		안승덕(의대 53)		
김희창(공대 63)	임보민(상대 58)	황만익(사대 59)	이규호(공대 56)		장 우원(의대 59)		안승덕(의대 53)		
나두섭(의대 66)	임진환(치대 68)		이능석(의대 57)		정승규(공대 60)		원종민(약대 57)		
나승욱(문리 59)	임창희(공대 73)	뉴욕	이대영(문리 64)		이석호(공대 66)		유덕영(공대 57)		
문덕수(공대 73)	장 준(인문 85)	NJ/NY/CT	이수호(보건 69)		표한승(치대 58)		유영준(의대 70)		
문병길(문리 61)	강에드워드(사대 60)		이영숙(간호 56)				유정현(의대 57)		
문인일(공대 51)	정동구(공대 57)	계동휘(치대 67)	이유성(사대 57)	미네소타			이계성(간호 65)		
민병돈(문리 58)	정연웅(상대 63)	곽노섭(문리 49)	이정은(의대 58)	MINNESOTA	김영남(사범 53)		이내원(사대 58)		
박부강(사대 64)	정예연(상대 63)	곽상준(약대 55)	이종석(상대 57)		김영화(문리 65)		이문향(공대 46)		
박희희(음대 66)	정재화(상대 59)	곽선섭(공대 61)	이종환(법대 51)		김영화(문리 65)		이영목(공대 59)		
박우성(상대 77)	정재훈(공대 64)	권문웅(미대 61)	이진자(간호 60)		남세현(공대 67)		이윤주(상대 63)		
박인수(농대 64)	정현진(간호 68)	금영천(약대 72)	이태상(문리 55)		성욱진(치대 87)		이재승(의대 55)		
박인창(농대 65)	정환(공대 64)	김동환()	이태안(의대 61)		송창원(문리 53)		이준영(치대 74)		
박일우(의대 70)	조동준(의대 57)	김동환(약대 56)	이한수(의대 55)		왕규현(의대 56)		장윤희(사대 54)		
박제인(약대 60)	조만연(상대 58)	김명철(공대 60)	이희자(간호 70)		이희자(간호 70)		정원자(농대 62)		
박창규(약대 59)	조상하(치대 64)	김문경(약대 61)	임공세(의대 61)		임공세(의대 61)		조화유(문리 61)		
박취서(약대 60)	조재길(사대 61)	김병권(문리 63)	임광록(간호 72)	샌디에고			오진석(치대 56)		
박태호(의대 66)	조정식(공대 60)	임재락(보건 68)	김병수(보건 64)	SAN DIEGO			유기병(문리 64)		
박해욱(간호 69)	조충자(간호 61)	김봉련(사대 54)	임총섭(미대 60)		강영호(의대 57)	앨라스카	이병인(수의 69)		
방명진(공대 73)	주정대(상대 65)	김상만(법대 52)	장화자(간호 60)		김기준(공대 61)	ALASKA	이성숙(가정 74)		
백소진(문리 55)	지인수(상대 59)	김석식(의대 58)	전병삼(약대 54)		남창우(사대 56)		이승경(자연 81)		
백혜란(미대 70)	최덕순(간호 70)	김석자(음대 59)	정인식(상대 58)		박우선(공대 57)		이지영(문리 67)		
변영근(수의 52)	최복영(사대 56)	김성현(약대 56)	정창동(간호 45)		이문상(공대 62)		이지훈(미대 57)		
서동영(사대 60)	최용관(공대 57)	김영애(사대 56)	조규웅(의대 59)		이영모(의대 55)		전무식(수의 61)		
서영석(문리 61)	최종권(문리 59)	김예흠(의대 55)	조아미(음대 61)		이영신(간호 77)	워싱턴주	정대준(상대 63)		
서치원(공대 69)	최철(의대)	김용연(문리 63)	조정현(수의 58)		이훈수(공대 57)	WASHINGTON	정태광(공대 74)		
선우원근(공 66)	하기환(공대 66)	김우영(상대 60)	조종수(공대 64)		전원일(의대 77)		정학량(약대 56)		
성주경(상대 68)	한근배(공대 65)	김정순(법대 53)	주공로(공대 68)		진성호(공대 64)		조영호(음대 56)		
손기용(의대 55)	한정현(치대 55)	김정희(간호 69)	최구진(약대 54)		진주디(문리)		주기목(수의 68)		
손영아(음대 85)	한종철(치대 62)	김창섭(공대 27)	최영혜(간호 64)				지흥민(수의 61)		
손학식(공대 61)	한홍택(공대 60)	김창화(미대 65)	최형무(법대 69)				차호순(문리 60)		
신동국(수의 76)	한효동(공대 58)	김현중(공대 63)	한승순(간호 70)	시카고			최정용(공대 64)		
신상화(공대 58)	허영진(문리)	김훈일(공대 60)	한인섭(약대 63)	IL/IN/WI/MI			최현태(문리 62)		
심삼은(상대 54)	홍선태(음대)	문석면(의대 52)	한태진(의대 58)				한용오(보건 69)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 7 ~ 2017. 6)

Tax Exempt - Federal TIN: 13-3859506

조지아	이강원(인문 76)	200	이정자(간호 59)	200	애리조나	이영	100	박석규(간호 59)	5,000	이수호(보건 69)	240		
GA/AL/MS	이건일(의대 62)	400	이준행(공대 48)	1,000	박양제(약대 48)	이만택(의대 52)	200	박종승(의대 56)	100	이영일(문리 53)	400		
김용건(문리 48)	이명선(상대 58)	500	이태상(공대 57)	100		이성숙(가정 74)	500	성홍환(수의 75)	200	이재택(법대 60)	240		
	이병준(상대 55)	1,000	이홍민(의대 57)	200	오레곤	이지춘(미대 57)	200	이원섭(농대 77)	100	이재원(법대 60)	200		
중부텍사스	이정근(사대 60)	100	정인식(상대 58)	300	김상순(상대 67)	전무식(수의 61)	200	임영자(간호 61)	500	이종보(간호 69)	480		
MID-TEXAS	이정복(공대 58)	20	조아미(음대 51)	200	김성철(치대 61)	전병남(상대 73)	100	임천빈(문리 61)	100	이준영(치대 74)	200		
박태우(공대 64)	이준호(상대 65)	75	조정현(수의 58)	400		정태광(공대 74)	100	정명숙(간호 61)	500	장 준(문리 85)	240		
진기주(상대 60)	장정용(미대 64)	100	주공로(공대 68)	75	오하이오	정학량(약대 56)	460	정일화(상대 55)	50	정재훈(공대 64)	480		
	전경철(공대 55)	200	최한용(농대 58)	200	최인갑(공대 57)	지흥민(수의 61)	400	정창동(간호 45)	100	정지선(상대 58)	240		
	전상욱(사대 52)	700	허선행(의대 64)	600		최종문(공대 61)	200	차기민(공대 85)	200	정진수(공대 56)	240		
	전원일(의대 77)	200			워싱턴 DC	한인섭(약대 63)	150			주기목(수의 68)	480		
필라델피아	정두구(공대 57)	300	뉴잉글랜드		강길총(약대 69)	현재원(공대 60)	200	종신회비(한번이상):		최무식(약대 66)	240		
PA/DE/S,NJ	김제호(상대 56)	100	김제호(상대 56)	100	권기현(사대 63)			오인석(법대 58)	3,000	최홍문(상대 61)	240		
강영배(수의 59)	김정환(공대 52)	200	김정환(공대 52)	200	권철수(의대 68)	캘리포니아				하선호(치대 81)	240		
문대욱(의대 67)	박종승(의대 56)	400	박종승(의대 56)	400	김진수(의대 60)	이종영(음대 58)	200	Education(장학금):		한상봉(수의 67)	240		
전무식(수의 61)	윤상대(수의 62)	2,000	윤상대(수의 62)	2,000	박원국(공대 52)	한광수(의대 57)	200	손재욱(가정 77)	2,000	한태호(인문 75)	480		
조영호(음대 56)	정선주(간호 62)	2,000	정선주(간호 62)	2,000	박평일(농대 69)			이근일(의대 62)	150				
한인섭(약대 63)					백 순(법대 58)	하와이				디자인 광고:			
*****	강재호(상대 57)	100			변만식(사대 49)	김승태(의대 57)	400	Charity(나눔):		김광호(문리 62)	9,000		
	강정수(문리 61)	200	룩키마운틴스		서윤석(의대 62)	김창원(공대 49)	200	손재욱(가정 77)	2,000	김영민(농대 72)	1,000		
	김윤범(의대 54)	200	송유준(의대 64)	200	오인환(문리 63)	최태식(의대 69)	200	윤경숙(문리 59)	3,000	김인중(농대 74)	1,000		
후원회비:	홍 진(간호 56)	500	미네소타		이선구(문리 65)	하트랜드				김창수(약대 64)	300		
	황만익(사대 59)	400	김영남(사대 53)	400	이영목(공대 59)	구광순(간호 66)	200	Golf 후원금:		김해정(문리 82)	500		
			김영화(문리 65)	200	진학송(약대 82)	25	권준희(가정 87)	50	이정주(공대 60)	500	노명호(공대 61)	1,000	
	뉴욕	2,000	샌디에고		워싱턴주	김성열(치대 61)	200	김경숙(가정 70)	300	NE Chapter	100	분당서울대병원	400
남가주	강에드워드(사대 60)	200	박우선(공대 57)	200	김성열(치대 61)	김동호(농대 58)	200	김시근(공대 72)	200			서치원(공대 69)	1,000
고영순(음대 59)	곽선섭(공대 61)	300	임춘수(의대 57)	400	김동호(농대 58)	이원섭(농대 77)	200	이상강(의대 70)	5,000	김영실	100	유재환(상대 67)	1,000
김영(수의 63)	김기훈(상대 52)	200			이원섭(농대 77)			이은미(자연 83)	200			윤상대(수의 62)	400
김경숙(간호 68)	김병철(공대 60)	200	시카고		유타	최은관(상대 64)	200	최환주(공대 83)	200	업소특 광고:		이승훈(상대 74)	1,800
김기형(상대 75)	김병국(보건 64)	200	구창만(의대 58)	100	김명혜(미대 77)	휴스턴				김호석(상대 81)	480	이건주(공대 60)	3,000
김동석(음대 64)	김승호(공대 71)	200	구행서(공대 69)	200	김성완(문리 59)	진기주(상대 60)	200	김은숙(의대 54)	240	김준옥(의대 54)	240	임낙균(약대 64)	1,500
김병연(공대 68)	김영만(상대 59)	200	송순영(문리 52)	500	김성완(문리 59)	채희순(동문 7)	200	김준수(치대 95)	240	김준수(치대 95)	240	차민영(의대 76)	1,000
김은중(상대 59)	김창수(약대 64)	500	이동환(의대 65)	100	이원섭(농대 77)	최환주(공대 83)	200	김원탁(공대 65)	240	김원탁(공대 65)	240	최정웅(공대 64)	500
김재중(치대 62)	김한중(의대 56)	300	이용범(의대 49)	200	필라델피아			김일영(의대 65)	100	김일영(의대 65)	100	한소여행사	300
김종표(법대 58)	노용범(의대 49)	200	문석면(의대 52)	400	강영배(수의 59)	Brain Network 후원금:		김재영(농대 62)	480	김재영(농대 62)	480	Website 광고:	
나두섭(의대 66)	문진구(공대 59)	1,200	임근식(문리 56)	200	김국강(치대 64)	김은중(상대 59)	200	김정수(약대 64)	240	김정수(약대 64)	240	김성래(치대 76)	240
박범순(가정 70)	손병우(문리 69)	200	최희수(문리 67)	100	김금자(간호 63)	남욱현(경영 84)	240	김정수(약대 64)	240	남욱현(경영 84)	240	김해정(문리 82)	500
박자경(사대 60)	신정택(약대 52)	200	조지아		김준자(간호 63)	윤상대(수의 62)	200	박희진(농대 78)	240	윤상대(수의 62)	200	듀오	400
박종수(수의 58)	양순우(법대 67)	20	김용자(사대 60)	200	김준자(치대 95)	한재은(의대 59)	500	서동영(사대 60)	240	이건주(공대 60)	3,000	손재욱(가정 77)	500
박창규(약대 59)	윤정욱(약대 50)	400	김순옥(의대 54)	165	김은숙(약대 53)	손재욱(가정 77)	3,000	석창호(의대 66)	480	손재욱(가정 77)	480	International, Inc.	
박창선(공대 55)	이강홍(상대 60)	500	정랑수(의대 60)	50	김종취(약대 54)			최창호(의대 66)	480	손재욱(가정 77)	480	(이원로)	500
백옥자(음대 71)	이수호(보건 69)	1,000	정일화(상대 55)	200	배성호(의대 65)	모교발절기금:		손재욱(가정 77)	480	손재욱(가정 77)	480	JG Business Link	500
서진(간호 58)	이운순(의대 52)	325	주중광(약대 60)	1,000	손재욱(가정 77)	김재호(상대 57)	200	신동국(수의 76)	340	신동국(수의 76)	340	KISS	500
안해정(가정 77)	이재람(상대 61)	500			송영두(의대 56)	김준혁(간호 61)	500	이경림(상대 64)	240	이경림(상대 64)	240	K-Shopping	500
양승문(공대 65)	이정복(공대 58)	20			윤정나(음대 57)	225		이병준(상대 55)	480	이병준(상대 55)	480		
염동해(농대 64)								이상대(농대 80)	120				
이위민(공대 64)													
유재환(상대 67)													
이 청(농대 61)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식품 / 음식점	우주개발 / 기술	클리닉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c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 Associates, AC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272-2460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3580 Wilshire Blvd. Suite 900 Los Angeles, CA 90010	자연나라 Jayeng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 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dr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hung@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CA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 1durihana@gmail.com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공대 56)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	PA 필라델피아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이재덕 (법대 60) Tel. (201) 944-4949 258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www.cosmorealty.com Promise Realty 김도명 (농대 70) 조민형 (음대 84) Tel. (201) 585-7766 172 Main Steet Fort Lee, NJ 07024 Email: Promise@DonaldRealty.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모 (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부동산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 (상대 55) Tel. (949) 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Tel. (770) 451-1850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건축	리테일러 / 보석	자동차 / 서비스	건축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내)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김준영 건축사무소 김준영 (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ASSI Plaza 내)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내가 번 돈 내가 쓰자!
다리 떨리기 전에 세계일주!

당신이 꿈꾸는 모든 여행이 가능합니다!

5대양 6대주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

전세계 파트너십으로 어느곳이든 이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본사직원과 현지가이드의
입체시스템, 믿음직한 동행과 함께하세요.

33년 이상

전문성과 노하우

서비스와 가이드

usaajoutour.com

213-388-4000

269호 | 2016년 9월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9

NY / NJ (뉴욕 / 뉴저지)	내과	재활의학	한의원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뉴저지 왕내과 Kyu S. WANG, M.D. 왕규성 Tel. (201) 224-6800 1033 Palisade Ave, Fort Lee, NJ 07024 백승원 위장내과 ANDREW S. BAIK M.D. 백승원 (의대 73) Tel. (201) 302-9774, (732) 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Chang Ho Suk, M.D. 석창호 (의대 66) Tel.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 27, Flushing, NY 11355 심인보 심장내과 IN-BO SHIM, M.D. 심인보 (의대 77) Tel. (201) 569-1800, (718) 836-0009 700 Palisade Ave 1St Floor Englewood Cliffs, NJ 07632 237 82nd St, Brooklyn, NY 11209 이재진 심장내과 Rhee, Jai Jeen, M.D.F.A.C.C. 이재진 (의대 58) Tel. (718) 426-6464 37-25 75th Street, Jackson Heights, NY 11372 이창석 내과 Chang Suk Lee, M.D. 이창석 (의대 72) Tel. (718) 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치갑 카이로프랙 COMPREHENSIVE PAIN THERAPY CENTER 김치갑 (의대 73) Tel. (201) 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통증 및 재활의학병원 Seung K. Kim, M.D. 김승관 (의대 70) Tel. (718) 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비뇨기과 정진우 비뇨기과 Dr. Chin W. Chung, MD 정진우 (의대 66) Tel.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윤세웅 비뇨기과 Richard Sei-Oung Yoon, M.D. Ph.D. D.D. 윤세웅 Tel. (718) 335-3333 75-21 Broadway #1, Elmhurst,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 (보건대 69) Tel. (718) 353-6207 36-32 Union St. #3F Flushing, NY 11354 MD-VA-워싱턴 DC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엔지니어링 컨설팅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coan.com
부동산	소아과	알려지	부동산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민재홍 소아과 Jae Hong Min, M.D., P.C. 민재홍 Tel. (718) 353-5300 34-09 Murray St #1fl,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Beum Yul Park, M.D. 박범열 (의대 75) Tel. (718) 229-1188, (718) 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효 소아과 C. Thomas Park, M.D. 박종효 (의대 79) Tel. (201) 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이혁엽 알려지 전문의 Hyok Yup Lee, MD. F.A. 이혁엽 (의대 73) Tel. (201) 568-3800, (718) 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LD Flushing, NY 11354 치과 계동휘중합치과(잇몸수술 전문의) Wayne Kye D.D.S, M.S 계동휘 (치대 67) Tel.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el. (201) 666-2828 570 Piermont Rd., Closter Commons #C1, Closter, NJ 07624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광고문의: (484)344-5500			

✂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지부 :	
주소 :	전 주소 :			
업소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일반광고	특별후원금
☐ 연 \$200 ☐ 연 \$500 ☐ 연 \$1,000 ☐ \$_____	☐ \$75 (1년: 2016.7~2017.6) ☐ \$75 (1년: 2017.7~2018.6) 1년: \$75 / 2년: \$150 ☐ 종신이사회비 (\$3,000이상)	☐ \$240 (2016.7~2017.6) ☐ \$240 (2017.7~2018.6) 1년: \$240 / 2년: \$480	*문의: 사무국 484-344-5500 Ext 302 Email: general@snuua.org	☐ Education (장학금) ☐ Charity (나눔)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발전기금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u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Purpose(목적) : Charity(나눔) · Education(배움) · Friendship(사귄)

서울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래(공)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재(음)	섭외국장	박철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Webmaster)	김원영(미)	사무장	이제니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김정현(공)	주필	정홍택(상)
편집위원	김진우(공) · 심회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이재원(사) · 한정민(농)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이혜림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현(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응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현(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정승규(공) · 김병연(공) · 민준기(공) · 이상강(의)

장학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포상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각 지역 지부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 위원장 손재옥(현 회장)

오인환(직전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 이상강(의
이원섭(농) · 강창석(의)

감사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607	byeongk@gmail.com	Feb-Jan
	차기회장	성주경(상대 68)	213,500,7977	jksung@skcoinsurance.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NY/NJ/CT	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dmkim516@gmail.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정태영(문리 71)	978,908,0196	chungty1@snuac.kr	Jul-Jun
	차기회장				
달라스 LA/DALLAS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송우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4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황호숙(사대 65)	651,308,0796	sook@nano-dyne.com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IL/IN/WI/MI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_oh@gmail.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오레곤 OR/ID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Jul-Jun
	차기회장	정세균(자연 72)	703,785,8467	saekew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회장	하주홍(경영 8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한민(공대 84)	425,444,3899	mrmstf@hotmail.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강창석(의대 73)	770,825,1004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상엽(공대 85)	770,622,5163	duluthcpas2@gmail.com	
중텍사스 MID-TEXAS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최정용(공대 64)	484-467-7609	jungwoongchoi@gmail.com	Jul-Jun
	부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윤기항(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sbaek2@utk.edu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를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ooj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cds@gmail.com	
휴스턴 HOUSTON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k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구(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 77)

WWW.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INFO@PAPERRUSSELLS.COM F. 801.479.4663

제 38대 뉴욕지부
회장 김도명 (농대 70)
총무 조민형 (음대 84)





Promise Realty
iPromiseRealty.com
Domyung (Donald) Kim
Record of Broker Owner

Cell: 917-207-5949
Tel: 201-585-7766
Fax: 201-585-7767
Email: dnmkim516@gmail.com
172 Main St. Fort Lee, NJ 07024

서울대 동문 10% 할인

혼자이긴
아까운 당신

가볍게 회복해 듀오

LA 213-383-2525
NY 201-242-0505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KISS®

“성장하는 기업”

25년간 세계 정상의 뷰티브랜드로 성장한
여러분과 함께 자녀세대의 미래를 열어갈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관



신관



김광호 (62) 신규천 (73) 한규상 (84) 김영훈 (93)

KISS® KISS PRODUCTS, INC.,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 www.KISSusa.com